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68호〉
2000년 9월 5일(화)

창간 1956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김상일 편집장 정홍섭 인쇄인 홍문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50

3 사설 — 계열제 문제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왜 또 씨니고요? 모든 사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더군요. 지금이 계열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때, 우리학교 사정에 꼭 맞는 학사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 때이니까 쓰지요.

5 지금 —
'잘있으라, 잘가시라 다시 만나요' 북으로 간 비전향장기수들,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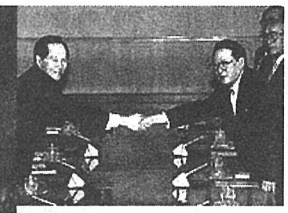
6 기획 — 기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6·15남북공동선언과 2000 통일대축전 속에서 나타난 공동선언의 의의들을 짚어보고 하반기 직접적인 '이행'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9 문화 —
우리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 해야죠. 매호 기획기사에서 만나요!

10 학생 — 한반도를 휩쓴 통일기운에 발맞춰 우리학교 대학을 총학생회는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정해구, 김정구 박사의 견해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전망을 모색해 보았다.

11 사회 —
북녘유적을 보기위해 방북했던 황선대표와 노란 옙쎄마리의 신세대 성공이가 나누는 대화.

올 해 상반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적 관심거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 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고,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지난 2일(토) 북으로 송환됐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속에서 2000년 통일대축전은 통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단체인 450개의 단체가 참여해
남북공동선언문 지지·관철하고, 전국민적으로 합의·확산하는 장이었다.



각기 다른 입장 속에서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 구성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과 학사구조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7일과 7월 22일에 각각 구성됐다.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은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성공적으로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형곤 기획조정처장(이태리어)을 필두로 7명의 교수들이 활동 준비 중에 있다.

또 양배움터 증복학과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학사구조개편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제2건학 기획단안 및 LG컨설팅안, 어문학부 교수들의 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지난 학기 중장기발전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과 학사구조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주(정치외교 97,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군은 "구성원들은 물론 총장조차 자세한 사안을 모르면서 추진에 힘을 가하고 있다"며 "자금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통합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부장 mimo329@hanmail.net

내년 신입생 15명 감원

내년 신입생이 15명 줄어든다.

지난 8월 8일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서울배움터 5명, 용인배움터 10명을 각각 감원하며 이는 지난 4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기조처에서 접수, 각 단과대학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기획조정처 장완봉씨는 "교육부의 BK 21 사업 일환인 대학원중심대학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선정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원조정에서 1명을 감축한 서울배움터 서반아어과의 학생회장 정성욱(97)군은 "잘못된 정책을 이행시키는 정부와 정부의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교측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교육부에 제출한 '동유럽학대 불가리아어과 신설 방안'은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억제' 정책에 따라 보류됐다.

대학부장 mimo329@hanmail.net

6·15선언 기반한 통축, 통일의 새지평

450개 단체 참가, 정부·정당과도 폭넓은 연대

'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통축)'이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양대학교에서 노동자·농민·학생 등 연인원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적 관심거리는 분단 55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의 이정표'라고 말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이다.

이번 선언문은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5개항이 지난 72년 남북정부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선언의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에 입각해 합의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으로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이산가족의 상봉과 연락소 설치 등이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지난 2일(토)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도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통축은 조국통일신봉대 환영식, 장기수 송환식, 전야제, 본행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부대행사와 부문별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북에 가서도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한 장기수의 말처럼, 특히 장기수 송환식은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단결과 연대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이희철(한총련 의장,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8·15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정당·시민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위해 "민화협과 서로의 행사에 각 대표 등을 파견하는 교차참가 방식으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민적인 반미의식의 확산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의식들이 통일대축전이라는 구체적인 장으로 결집되기도 했다. 매향리 폭격장, 한국전쟁당시 양민학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등의 반미에 관련한 사안들이 행사장의 주요한 선전매개체였으며, 사회보험노조는 공안탄압분쇄의자를 담은 집회를 대회 공간 내에서 진행하고 조직적으로 통일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분단조국과 연결된 외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전 민족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며 "민족의 힘으로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시키고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는 투쟁을 만들어가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분단된 조국의 양심들은 굳건히 통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있지 않고서 주권 국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기간 통일운동에서 범민련과 한총련이 지적 소요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농민들이 그 지적소유권을 갖겠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광훈 의장의 말처럼 이제는 미국반대와 자주적인 조국통일 없이는 각 조직의 정치적 요구가 실현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천년 통축은 남한사회의 통일운동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 대행사였다. 이는 이번 행사가 정권의 이적규정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국의 통일을 외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범청학련의 10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이제는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통축은 이후 조국통일 운동의 명확한 목표를 남북공동선언문 지지, 관철로 설정되고 전 국민적으로 합의·확산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통축은 통일운동역사상 가장 많은 단체인 450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또한 지역별로 '통일축전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결성되고 지역별 통일축전을 치렀다는 것도 큰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결의를 하는 장이었다는 것도 평가할 만한 점이다. 이속에서 이후 통일운동은 상당히 대중적이고 진일보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서울, 도서관 새 단장

지난 1일(금) 도서관이 시설 개보수 공사와 공간재배치를 마치고 재개관됐다.

20여년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노후된 도서관은 냉난방 시설 확충, 조도 향상, 배관 교체 등의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공사를 방학중에 실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1층 비정기간행물, 사전 등 비대출도서, 2, 3층은 대출도서로 구분하고, 열람과, 사서과 등 행정 부서공간을 통합해 1, 2층으로 모았다.

4층 열람실 일부를 개조해 40여대의 컴퓨터가 비치된 멀티미디어실을 개관하고, 도서관측은 학생들의 자료검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열람과장 김종희씨는 "대출, 반납, 이용자 관리 등을 한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도서관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강 후 도서관을 다시 찾은 학생들은 대출이 대체적으로 편해졌다는 반응이었으나 △층마다 열람석이 늘어 조금 소란스럽다는 점 △잦은 인터넷 사용으로 컴퓨터를 도서 검색은 하기 어렵다는 점 △자료확충이 시급하다는 점 등의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 학생위원회 위원장 전대근(서양·불어 4)군은 "이용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자자료 등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서관측에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대학원 건물에 마련된 열람실을 이용했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빈의자 — 땡전 뉴스, 조선일보가 남긴 것

▲어릴적,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는 텔레비전 뉴스는 언제나 '전두환 대통령은…', 하며 시작되는 이른바 '뻥전뉴스'를 내보내곤 했다.

이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던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도 '전두환'이라는 고유명사를 '친애하는(국민여러분)'처럼 으레히 대통령 앞에 붙는 상투적 수식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언론은 매체를 접하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식구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최근 이러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수십년간 '재벌언론' 혹은 '언론재벌'로써 기형적 성장을 지속해왔던 한국언론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판의 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다.

일제시대, 이봉창 의사를 '천황폐하를 테러한 범인'으로 80년 들볶처럼 일어났던 민중항쟁을 짓밟고 세워진 군부정권의 대표자를 '새시대의 기수'로 지칭한 이런 언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했을지 모를일이다. 이는 최근의 '주한미군 영구주둔론'이나 '북한 음모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새것과 낡은 제도와의 싸움 속에서 보다 진보적인 혹으로 발전한다는 역사적 명제를 역행이라는 구도를 펴 온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존재형태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세대들이 열광하는 가수를 모델로 기용한다거나 정치적인 입장이 덜 드러나는 문화면에서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사들을 대게 필진으로 섭외, 색깔을 교묘히 흐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지식인모임' 대표 김동민 교수는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지면에 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극우 신문을 돕는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자"고 역설한 바도 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보이는 것보다 무섭다.

어느 틈엔가 무섭게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든 '수구'의 논객들이 유포한 파시즘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마치 어린시절 대통령앞에는 언제나 '전두환'이라는 단어를 붙여야한다고 믿었던 생각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것의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케 해 주는 열쇠가 아닐까

편집장 oedae98@hanmail.net

공 통

양 배움터 여름농활 진행

서울배움터는 6월 29일(목)부터 7월 8일(토)까지 전북 순창에서 여름농활을 진행했다.

통일문제, 한·칠레 무역 협정 반대 및 WTO 미국 반대등을 기치로 내건 이번 여름농활에서는 일손을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들도 함께 얘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총학생회 농활 주체인 이강산(동양·중국어 97)군은 "사전 교육이 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사에서 열심히 해줘 고맙다"며 "농민분들의 평가가 좋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지난 6월 22일(목)부터 7월 2일(일)까지 매향리에서 반전 박람회 등을 통해 함께 투쟁하며 농활을 수행했다. 매향리 농활대에 참가한 허환희(서유럽·노어 97)양은 "젊은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같이 눈물 흘리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먼 훗날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며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대학정보시스템 개통식 및 학생서비스센터 개관식

대학정보시스템 개통식과 학생서비스센터 개관식이 지난 29일(화) 교수회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정, 학사, 교육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작업인 대학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회계, 급여, 성적처리 등의 작업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학정보시스템 추진상황 발표자로 나온 전산과장 박원옥씨는 "현재 공정이 68%정도·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단위당 업무통합, 보안문제 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바탕으로 개관한 학생서비스센터는 학적변동업무, 증명서 발급업무, 학생증 재발급,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동록금 고지서 재발급, 미국 비이민 단기비자 대학추천서(IURP)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서비스센터의 위치는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지하 1층, 용인배움터 후생관 3층이다.

총장, 미주 및 중남미 지역 순방

조규철 총장이 지난 7월 18일(화)부터 8월 12(토)까지 3주간 미주 및 중남미지역을 순방했다.

해외 동문회 활성화와 발전기금모금을 위한 이번 순방에서 총장은 미국 2개 도시와 중남미 6개국을 방문했으며, 4억 5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약정받았다. 유럽, 동남아 등 지난 3번의 해외방문을 포함해 총장의 이번 방문으로 공식적인 해외순방은 마쳤으며, 결과로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외 순방을 모두 마친 조규철 총장은 "순방 이후에도 동문들과 꾸준한 연계를 갖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어계측공학전공-디지털정보공학전공, 마인어과-마인니어과로 명칭변경

제어계측공학전공 명칭이 디지털정보공학전공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마인어과)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과로 변경돼 2001년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제어계측공학과는 현재의 명칭이 전공의 특성과 교수진의 연구활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더욱이 수험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개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학과 및 정보산업공과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자·제어공학부의 명칭도 전자정보공학부로 바뀌었다.

한편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마인어과)도 학과장의 제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체교수 간담회 열려

전체교수간담회가 지난 8월 24일 용인배움터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교무처·교원업적평가시행 △기획조정처-15명 감축된 2001년 학생정원조정 결과,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학사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학생처-양배움터 학생회의 방중 사업인 농민학생연대활동, 일꾼수련회와 장학금 지급 내용 △총무처-시설보수 공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양배움터 귀향차표 판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화)부터 9월 5일(화)까지 붉은광장에서 귀향버스표와 비행기표를 판매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향길을 안내하는 이번 귀향차편의 노선은 신청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나, 타 학교의 노선활용이 가능해 다양하다.

버스의 경우 오는 8일(금) 오전 10시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출발하며, 비행기는 7일 (목) 저녁 7시 20분과 8일 오전 7시 20분과 오후 3시 김포공항에서 출발한다.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도 지난 1일(금)부터 6일(수)까지 학생회관 1층 생협 학생위원회 사무실에서 귀향버스표를 판매한다.

오는 8일(목) 10시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귀향버스는 예년과 달리 주요 교통요지에서만 정차한다.

교직원 인사이동

△처장승진 윤영모 재무처 재무처장

△과장승진 전영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과장 △처장 보직이동 안병창 재무처 재무처장 → 총장 대외담당 보좌역 △주임 보직이동 박명순 총무처 →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양과정위원회 겸 실용외국어위원회 사무주임/ 손천수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양과정위원회 겸 실용외국어위원회 사무주임 → 대학원 사무과 사무주임 △직원 근무처이동 김춘옥 사범대학 교학과 → 총무처 파견) 법인 사무처/ 명기선 대학원 사무2과 → 사범대학 교학과

△ 명예퇴직

총무처 용원직 박정자

△ 보임

대학원장 김지수 교수

교육대학원장 남성우 교수

통역번역대학원장 조재영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구자용 교수

사범대학장 김충남 교수

외대발전캠페인 본부장 최완진 교수

홍보실장 고영훈 교수

외국학종합연구센터원장

최영수 교수

노동조합 출범식 개최

9대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9일(화)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130여명의 조합원과 조규철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잔치를 진행했다.

지부장에 전 수석지부장 심재영씨, 수석 부지부장에는 이정철씨를 포함한 26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은 오는 2002년까지 노동조합을 이끌어간다.

이와 관련 지부장 심재영씨는 "재미있고,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겠다"며 "비정규직문제 등 학내의 현안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준 강의실 개관식

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은 오는 7일(목) 5시 선우준 강의실 개관식을 진행한다.

경영정보대학원측은 작년 뇌졸중으로 사망한 선우준(경영정보대학원 2학기재학)군의 부친인 선우 현범(동북아에너지조합 회장)씨가 전달한 장학금으로 영상강의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갖춰진 2개의 강의실을 마련했다.

서 울

사범대 6일간 열린학교 진행

사범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열린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열린 학교는 △부족한 실습교육 확대 △대안 교육의 모색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이 되는 것 이라는 취지하에 열렸다. 사범대 학생들과 중학생 7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열린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영어, 역사, 세계문화 등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풍물, 레크레이션, 전통놀이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범대 학생회장 박찬규(영어교육 97)군은 "이제껏 열린학교가 끝난 후 활동이 잘 안돼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꼭 체육대회나 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열려

조국통일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수) 통일학교를 열었다.

통일학교 첫날인 지난 1일(화)에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이북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2일(수)에는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절박성을 주제로한 강연과 '범민련, 한총련 통일 운동 10년의 역사' 비디오 시청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박윤정(사회·행정 96)양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일꾼수련회 열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일꾼수련회가 지난 7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대천수련원에서 열렸다.

외부강연, 퀴즈 크래프트, 역지사지, 테마토크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각 단위 학생회 일꾼들이 참가하여 상반기 사업을 점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 대해 총부학생회장 권영순(동양·인도어 97)군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경험해 보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자리였던 역지사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법대생, 8·15 특별사면돼

지난 해 12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 부총재 김근태의원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법대 조경래(95) 학생이 8·15 특사로 사면복권 되었다.

이에 대해 조군은 "안될 줄 알았다. 8·15특사로 사면복권된 사람들은 많지만 여전히 감옥에는 많은 양심수들이 있다"며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의 물꼬를 트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여·야 그리고 민중들이 외치고 있다. 정부는 민중들의 뜻을 바로보고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를 해제해서 민족대화합을 실천적으로 실행해야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FBS 홈페이지 개설

www.hellofbs.com

지난 8월 26일(일) 교육방송국(FBS)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가 hellofbs.com 인 교육방송국의 홈페이지는 리포트 자료, 강의 추천, .학교행사 소개, 신청곡과 사연 소개, 음악도 매일 업데이트 한다. 이와 관련 실무국장 임태우(상경·무역 98)군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외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수님, 그 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민(영어과) △이춘복(불어과) △오한진(독일어과) △예창해(한국어교육과) △이은순(사학과)

수강신청 변경 일정

용인 - 9/5(화) 2,3학년 9/6(수) 3,4학년 9/7(목) 4학년, 전체

서울 - 9/8(금) 1학년 9/14(목) 1,2학년 9/15(금) 2,3학년 9/18(월) 3,4학년 9/19(화) 4학년, 전체

주부 통일 열창

'외대학생·시민 한마당' 이 지난 8월 11일(금)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노래 한마당 △연대발언 △학생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 노래 한마당에 참가한 우리집 분식 김데레사씨는 통일열원의 뜻을 밝히며 노래했고, 동대문 청년회 강정옥씨는 연대발언을 통해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 서로의 공통점을 앞세우면 통일은 곧 다가올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부

용 인

모현학사 전면 개수 공사 완료

방학을 시작하면서 실시한 모현학사 개수공사가 지난 8월 30일(수) 완료돼 기숙사생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됐다. △통신 선설공사 △급수 설비 교체 △주방 바닥 타일·화장실 칸막이 교체 등으로 낙후된 시설이 개선됐으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열 난방 기계는 내부 시설공사로 보완했다.

이와 관련 관리과측은 "전면 교체를 원치으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일단 재활용을 할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서, 수지 지입제 버스노선 신설

지난 1일(금)부터 수서, 수지구간 지입제 버스가 각각 운행된다.

수지 노선은 등교 3회, 하교 2회 한 대의 버스가 운행돼 정평·에너지 관리공단-수지읍사무소-한신아파트-대지아파트(소요시간 60분)를 거치며 수서 노선은 등교 4회, 하교 2회 두 대의 버스가 수서역-세곡동 분당 이매촌-시범단지(소요시간 70분)를 거친다.

이와 관련 총무주임 이호일씨는 "방중 수원 등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분포를 조사해 이용률을 측정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이용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학당국이 방중 총학생회와 세부협의를 완료했으며 9월 한 달간 시범 운행을 한 뒤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화)까지 특별장학금 신청

학생처는 지난 8월 28일(월)부터 오는 19(화)까지 특별장학금 수혜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고 장경자씨가 기탁한 '장경자 장학금'(등록금 전액 면제)을 지급하며 지난 학기 6천 2백만원을 지급한 것과 달리 장학금 액수와 장학생을 늘려 9천 7백만원을 '특별장학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학생처 장학담당 김문배씨는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출서류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 학생상담신청서 등이며 가계곤란 순위를 정해 오는 21일(목)에 발표한다.

방중 도서관 침수, 산사태 발생

용인지역의 집중호우로 지난 7월 22일(토) 도서관 1층이 침수되고 건물 뒤쪽에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학당국은 7월 22일 철야 작업으로 침수된 도서관을 복구했으며 7월 23일(일)부터 8월 16일(수)까지 자체복구가 가능한 지역을 복구했다. 그러나 비교적 범위가 큰 도서관 뒤쪽의 산사태는 외부에 의뢰해 작업을 해야 하므로 현재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예방책에 대해 관리과 주임 유기찬씨는 "배움터 내 취약지구를 수시로 점검해 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생협, 학생식당 및 구내매장 전면 재계약

대학생활협동조합(생협)은 방중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생복지관(후복관) 매장과 식당에 대한 재선정 및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지난 6월 생협 4차 임시이사회에서 총 5개 급식업체 중 아리코를 선정해 1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아리코측은 후복과 학생식당, 교직원 식당, 모현학사 식당에 배식대 개조, 블라인드 설치 등을 신규투자 사항으로 제시해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복지매장을 재계약해 가격인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컴퓨터점을 신설했다.

이 사람 "경산 페코발트 광산 현장은 결코 가감이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경산시 페코발트 광산 양민학살 현장을 다녀온 이유준(사회·신문방송 00)군을 만나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확신 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생각들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8일(화) 미군의 양민 학살 현장인 경산시 페코발트광산을 다녀온 이유준(사회·신문방송 00)군은 그 날의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군은 "과 단위로 구성된 미군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조사 위원회(전민특위)에서 세미나를 통해 이 지역의 양민학살 피 학살자 수가 3~4천여명이 넘는 현실을 알았어요"라며 양민학살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역사가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참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연다.

언론에 의해 지난 1월 14일 전국적으로 알려진 경산시 페코발트현장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처형돼 매몰된 장소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 페코발트광산 현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 열기 속에서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내고 그 진상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 후 유족들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또다시 묻히게 된다.

"직접 현장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놀라웠고 착잡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이군은 "그 많은 유골들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또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수직갱속에 두개골과 골반뼈등 수십개의 유골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미군들이 학살한 방식 또한 끔찍한데 1백m의 깊이의 수직갱에 수백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밀어 넣었다고 한다.

광산안으로 조를 짜서 들어갔다 말없이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과 함께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고등학교때까지 받아왔던 교육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이군.

아직도 미국을 우방국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한국전쟁때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위령들의 죽음마저 더럽히는 것 같다고 한다.

학생들의 무관심과 시민들과의 거리감이 큰 고민으로 남는다는 이군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전전 등을 통해 더 많이 알리고 꾸준한 활동을 벌이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한다.

긴 시간 이군과의 대화 속에서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 며칠간 갱도에서 나온 핏물이 마을 앞 하천을 붉게 적셨다'는 증언이 결코 가감이 없는 역사적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대학원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4일)	소고기무우국(₩1,000)	소고기떡볶음덮밥	얼갈이곰탕(₩1,500)	감자밥은국(₩2,300)	육계장(₩2,500)
화(5일)	물오징어찌개(₩1,300)	콩나물비빔밥(₩1,200)	팔보채(₩1,400)	단배추된장국(₩2,300)	닭은반(₩2,700)
수(6일)	콩나물국밥(₩1,400)	짜장장식	비프카레라이스(₩1,400)	무채매운국(₩2,300)	애호박된장찌개(₩2,500)
목(7일)	버섯김치찌개(₩1,400)	소고기국밥(₩1,500)	오징어숙회비빔밥(₩1,300)	잡뼈우거지국(₩2,300)	산채비빔밥(₩2,500)
금(8일)	북어국밥(₩1,500)	튀욱수수볶음밥(₩1,300)	콩나물비빔밥(₩1,200)	소고기미역국(₩2,300)	삼선짜장면(₩2,2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이문관			후복관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탕류
월(4일)	삼색나물비빔밥(₩1,400)	갈비탕(₩1,800)	부대찌개(₩1,400)	무다시마국(₩1,400)	호박고추장찌개(₩1,400)	어묵장식(₩1,800)
화(5일)	카레라이스(₩1,400)	사골우거지탕(₩1,800)	미역완자국(₩1,400)	수제비국(₩1,400)	맑은미역국(₩1,400)	육개장(₩1,800)
수(6일)	고추참치덮밥(₩1,400)	돈사태콩나물백반(₩1,800)	연두부조개탕(₩1,400)	계란파국(₩1,400)	통태추국(₩1,400)	떡만두국(₩1,800)
목(7일)	소고기무국백반(₩1,400)	닭육개장(₩1,800)	미더덕콩나물탕(₩1,400)	우거지된장국(₩1,400)	쇠고기무국(₩1,400)	장국밥(₩1,800)
금(8일)	양송이볶음밥(₩1,400)	사리곰탕(₩1,800)	꽁치구이백반(₩1,400)	김치찌개(₩1,400)	콩나물국(₩1,400)	설렁탕(₩1,800)

교원업적평가 고용불안정 예측

■ *교원업적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도식화, 계량화 치중
연봉제, 계약제 발판
공정성 불투명

지난 8월 24일(목) 전체교수간담회에서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이 전면 발표됐다. 그러나 교수들은 연구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수긍하지만 시행방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종전 교원업적평가가 하한선을 규정하는 상대적인 것이었다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것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창의적 연구 및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결과인 연구업적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교육업적 △봉사업적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3개 영역의 비율도 정하히 6:3:1로 정해 연구업적의 비중을 비교적 높였다. 서울배움터 교무주임 이용로씨는 "교수들의 실적을 막연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적에 맞는 인센티브 점수를 주어 올바른 경쟁이 될 수 있는 종토를 만들기 위해서다"고 이번 세칙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구성돼 1년 가까이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위원회에서 세칙을 검토했던, 본 위원회 단장 조재영(영어학부)교수도 마찬가지로 "교수들이 권군적으로 달할 수 있는 업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능력이 많은 교수들이 끊임없이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라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대학당국이 이번 세칙을 그대로 시행 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예측된다는 것이 교수들의 시각이다.

먼저,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식화하고 계량화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이다. 논문의 질보다는 양에 편승한다는 것과 논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도 연구협력자에서 발간한 전문학술 목록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국제지명 전문학술지에 발표되면 200점(단과대학마다 다르다), 국내 일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면 70점 등으로 연구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연구실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K교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문학과는 국제전문학술잡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발표하고 깊이가 짧은 논문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논리는 이해될 수 없다"며 "미국의 학술지로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데 우선 기준으로 하는 것도 미국의 학문종토를 고려해 답습하는 예이며 이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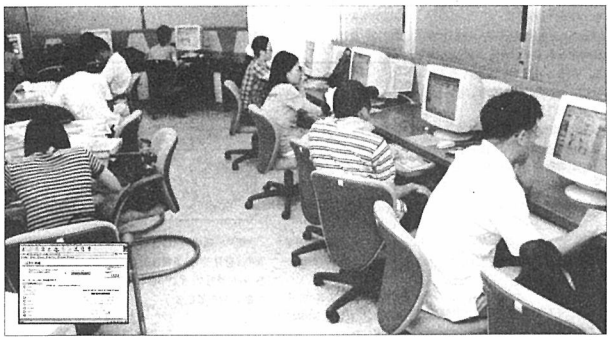
둘째로 교수들이 지적하는 바는 교원업적평가가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시장일반논리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02년부터 각 대학이 연봉제·계약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연봉제를 시행하면 이를 점수화해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해 보상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교수들의 업적평가로 실적을 축적해 연봉제·계약제를 시행할 것을 잠정 결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에서조차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방식을 시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L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학문이다. 수강 학생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학문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을 교수들의 실력과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기초 인문학도 비슷한 평가에서 위기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작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지금, 연봉제·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한 재단의 권한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 감태정(일본어과)교수는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는 모든 조건이 전제 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태에서 2002년에 연봉제·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측과의 계약이 쌍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무적인 계약'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교수협의회가 학칙기구화되지 못해, 교수들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봉제·계약제 사안마저 관여하지 못하고 대학당국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안정된 지위가 확보되어야 교육과 연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교수들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연구와 강의의 질을 더욱 격하시키게 된다"고 전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향상시켜 학문발전을 꾀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시행하기 위한 선행조건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문의 가치는 제고 될 수 없으며 특히 교수들의 생활적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연봉제·계약제 시행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부장 mino329@hanmail.net



PC방(?)

학생서비스 센터의 컴퓨터는 증명서 발급, 고지서 재발급, 수강신청, 성적확인등 학사행정을 위해 설치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편지 수신확인, 오락, 인터넷 검색 등 개인 용도를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교에 컴퓨터가 부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학사행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을 필요로 할 때는 배려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부

학부 계열제 이대로 좋은가?

(1) 각 대학 학사구조 개편 흐름과 사회대 계열제 철폐투쟁

사회대 계열제 철폐 논의 호기

우리학교 학사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보는 지난 학기 동안 불거진 사회대 계열제 문제를 돌아보고, 타 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한학기 동안 계속된 사회대 계열제 철폐투쟁은 학과 교수와 학생들간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는 학제 개편논의의 집행자들에게도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96년 학부제 도입이후 계속됐던 학교와 학생들의 학부제 철폐요구는 올해도 과제로의 환원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라 회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학들의 추종에도 우리학교도 편승했음이 클 것이다.

BK 21 사업 선정과 관련한 지원금을 무기로 한 정부의 교육지원분배방식은 이 사업이 본래 목표하고 있는 대학원 중심 교육정책으로서 각 학교당국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 것의 본격적인 현상이 대학내의 모집단위 광역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교수들의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올해만도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은 계획된 광역화 모집단위를 축소해 정원조정신청을 했다. 연세대의 경우 인문계열의 신학분야와 이학계열의 생활과학분야를 분리하고, 보건·환경의공학부도 보건행정학과와 환경·의공학부로 분리했다. 문과대학의 3개 모집단위를 올해 6개로 분할한 중앙대도 내년도에 이를 더 세분화할 예정이다. 고려대의 경우 서양어문학부, 인문학부, 어문학부(서창캠퍼스)를 각각 2개의 모집단위로 분할·신청했으나, 두뇌한국(BK)21사업 선정당시의 약속을 지키라는 교육부의 반발에 부딪혀 재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제의 폐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공유사성을 무시한 학과간 통폐합, 전공신탁팀의 보장 무시, 전문성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각 학교에 적합한 학사제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반증하는 예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학교 행정학과는 중앙대, 성균관대 등 계열제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학교들의 사정을 조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학과 학생회장 김동현(98)군은 "조사작업을 충실히 해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학과 교수들과의 논의도 진행해 2002년부터는 학과제로 복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는 일관된 학사제도를 만들 수 있는 호기에 와 있다. 외대발전계획안 추진 소위원회 중 학사구조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장 한형곤(이태리어과) 교수는 "양 배움터에 걸쳐있는 중복학과를 조정하는 것외에도, 학사구조의 방향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사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교수, 학생들의 과제 복원요구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발전안은 학원 3주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는 명제이다. 사회대계열제 문제가 학사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때 그 명제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사설

조건없는 만남

자료공개, 면회소 설치 등으로 보장해야

29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막되었다.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그 후속조처로서 남북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마다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번 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은근히 큰 것 같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지난 4월 총선이 있기 며칠 전, 정부가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했었을 때의 세간의 반응을 상기하게 한다. 때가 때였는지라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과 기대보다는 표심을 잡기 위해 또 하나의 북풍이 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발표를 대했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담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정상회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근거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소문들이 악의적인 왜곡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러한 악성 루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를 재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남북대화와 협조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 또한 모든 일을 한 치 의혹의 여지없이 투명하게 진행시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야말로 우리 겨레가 통일로 가는 도상에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수차례의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있었고 그 성과들 또한 가히 놀랄만한 것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50년간 응어리졌던 이산과 분단의 한을 풀고 혈육이 하나가 되는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될 감격적인 순간들이었다. 서울 신의주간을 연결하는 경의선 복구에 대한 남북 합의 또한 반세기가 넘도록 두동강이 나 있었던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의 초석을 세운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 당국간의 접촉이나 회담이 정례화되어야 할 때다. 그리고 여러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을 상설화해야 할 때다. 특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 당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선결적으로 지속시켜야 할 사안이다. 누군가는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데 대전제가 되었던 인도주의의 추상성을 꼬집고 그 극적인 연출성을 따진다. 그러나 부모 자식이 만나고 형제 자매가 만나는데 무슨 원칙이 필요하고 무슨 주의가 필요한지 필자는 모르겠다. 바로 이 원칙이나 주의야말로 이산과 분단의 한을 50년간 쌓게 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번과 같은 식의 이산가족상봉이 700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적고 준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그 장소를 상설화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남북당국은 우선 이산가족의 성명, 주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쌍방에 공개하여 서로의 생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간에는 서신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원할 시 그 상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리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면회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난 번 남북이산가족상봉시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 깊고 굵게 패인 주름살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번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망연자실한 시선을 보았다. 그 주름살과 시선은 이산가족상봉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았다.

추가등록기간 안내

2000학년도 제 2학기 제학생 추가 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2000년 9월 18일(월) - 2000년 9월 25일(월)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하나은행 본점 및 지점 (학자금 융자수천 학생에 한함)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외부장학생은 학생처에서 장학증서를 수령후 고지서와 함께 납부 할 것. (교내 또는 외부장학생의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은행에서 수납절차를 밟아야 함)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6. 9희이상 등록대상자 학비감면
   가. 수강신청시 10학점 이내로 신청한 자. (11학점 이상은 제학생과 동일함.)
   나. 학생서비스센터에서 고지서를 개별발급 받음.
   다. 학적과에서 9회이상 등록확인을 받은 후 결리과에서 금액을 정정받아야함.
   라. 수납장소 : 제일은행 외대지점(서울), 제일은행 외대출장소(용인)에서만 가능함.
7. 분할등록
   가. 분할등록예치금 : 100만원 이상(장학금수혜자는 장학금을 차감한 잔액의 ½이상)
   나. 예치금 납부기간 : 2000. 9. 18(월) - 9. 25(월)까지
   다. 잔액납부기한 : 2000. 10. 20(금)까지
   라. 수납장소 : 제일은행 외대지점(서울), 제일은행 외대출장소(용인)에서만 가능함.
   마. 제출서류 : 분할등록 납부신청서, 학부모 인감증명서 각 1통.
8. 인터넷 수납 : 2000-2학기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ID를 발급받아야 함.
   가. 국민은행 : http://www.kookmin.co.kr
   나. 제일은행 : http://www.kfb.co.kr
   다.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kr

2000. 9. 5

재 무 처 장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은 금번 태계 방학기간동안 도서관내에 노후 시설 교체 및 일부공간을 재조정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기간동안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안내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나니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재개관 일시 : 2000년 9월 1일 09:00
2. 공간 재배치
   1층 :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신문열람실, P.C검색대 및 복사실, 열람실
   2층 : 도서관장실, 대출반납 서비스 창구, 사서과 목록(목수어)
   동목사기 : 문학(800), P.C 검색대
   서목사기 : 철학(100), 어학(400), P.C검색대 및 열람실
   3층 : 동목사기 : 사회과학(300)
   서목사기 : 총류(000) 종교(200) 자연과학(500) 기술과학(600) 예술(700) 역사, 지리(900)
   P.C검색대 및 열람실
   중앙계단 : 워드용 P.C실, 스토리룸
   4층 : 멀티미디어실, 제작열람실, 휴게실
   5층 : 제작열람실, 제작열람실
   6층 : 휴게실
3. 주요시설물 공사
   * 냇노랑 시설 전면 개 보수
   * 승강, 전기, 조명 시설 재 시설
   * 화장실 현대식으로 전면 개 보수
   * 일부 열람석및 의자 교체 보수
   * 멀티미디어실 신설
   * 내부 벽 도색 실시
   * 공기정화 시설 추가 설치

참고사항

- 종전 일반도서중 1,2,3층 서고에 분산 배치하여 이용도록 하였으 나이를 계분류하여 2,3층 서고에 위치 등과 통합 재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서가에서 원하는 책을 쉽게 검색)
- 각종 서고에는 일정 수량의 열람석과 검색 P.C, 무인 복사기를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서적 및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 열람, 복사 용이)
- 학생증 재발급에 관련 업무는 학생처비스센터로 이관하여 종전의 복잡한 절차를거치지 않고 한번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타대학 열람 의뢰서 발급 및 접수는 종전의 대출창구에서 접고있로 이전하였습니다
- 종전의 대출반납 업무를 비롯하여 출입증재발급 업무등 기타 제반 서비스업무를 09:00~21:00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00. 9. 5

도 서 관 장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 안내

1. 교육일정 및 구분

일자	년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간	훈련장소
9. 21(수)	1년차(38년도 전역자)	전역자	소집점검	4	육군 57기무대
9. 28(목)	2~7년차	서울캠퍼스, 동두천대학, 동탄학대학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대학, 공과대학, 대학원생, 교직원	기본교육	8	30대대 (해당시 문학동 예비군 훈련)
9. 29(금)					

2. 훈련대상 제외자
   가. 2000년도 전역 예비군
   나. 1999년도 전역자로서 주민등록지에서 4시간 교육을 필한자.
   다. 93-98년도 전역자로서 주민등록지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보충교육 훈련을 불참한 사실이 없는자.
   라. 전역 8년차 이상자(장교, 하사관, 병)
3. 유의사항
   가. 대학(대학원) 별로 실시되는 교육일정을 반드시 숙지 할 것.
   나. 개별 입소시는 08:00시 전까지 예비군 교장에 필히 도착할 것.(미리미 리가조치 할)
   다. 군모, 군복, 군화, 고무줄을 반드시 착용 할 것. (복장 불량자 귀가조치 함)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 필히 지참 할 것. (학교에서 신분 확인증을 발행하지 않음)
   마.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 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4. 예비군 훈련 소집방법
   학생예비군 훈련소집 쌍입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기 힘고 학과 게시판 공고, 자건함 게시판 공고, 외대학보 게재, 교내방송, 학교 인터넷(공지사항) 등으로 대체되니 착오없기 바람.
5. 교통편
   가. 1년차(1999년도 전역자) 오전 11:00 시 출발(출발장소 :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앞 도로)
   나. 2-7년차(93-98년도 전역자)
   1) 서울거주자: 오전 06:30분 출발 (출발장소: 종합운동장 전철역 근처 주차장)
   2) 상남 · 모현거주자 : 오전 07:00시 출발 (출발장소: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앞 도로)
6. 기타사항
   가. 예비군 훈련이 기존보다 더욱더 강화 되었으므로 입소시간과 복장 및 훈련에 지맹히 신경을 쓸 것.
   나. 기본교육훈련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2000. 9. 15일 까지 반드시 예비군 대원편입신청을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캠퍼스 학생계획관실(예비군 연대문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전화 : (031) 330-4111, 330-4119

2000. 9. 5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

정치외교학과
이상환(남)1963. 1. 5
한국외대 정외과
Michigan State Univ.
정치학

아랍어과
이영태(남)1958. 5.30
한국외대 아랍어과
Univ. of Cairo
아랍어학

경영학과
이덕현(남)1962. 5.29
서울대 경영학과
Univ. of Minnesota
경영학

태국어과
이병도(남)1960.10.16
한국외대 태국어과
한국외대
국제관계연구학

동유반영대학원(한독)
안인경(여)1959. 8.27
한국외대 독일어과
Ruhr-Universitat Bochum
독어학

철학전공
김병환(남)1964. 1. 8
고려대 철학과
Univ. of Arizona
중국철학

동유반영대학원(한서)
한윤덕(남)1963. 9.10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서어학

언어학전공
남지순(여) 1962. 2.19
연세대 불어불문과
Paris VII 언어학

불어과
최용호(남) 1966.12.16
한국외대불어 교육과
Paris X 언어과학

전자공학전공
김동식(남) 1963.10.16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일본어과
권경애(여)1964. 6.26
한국외대 일본어과
꿈꾸대학 언어학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대인(남)1960. 3.26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Polytechnic Univ. 전기공학

(이상 12명)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시기 : 학기 중 매주,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 한세기사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두 OFDAE, e-mail oodaea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흡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여 론 4

외대학보에 바란다

개개인의 의견을 한 목소리로 모아 주어야

개개인 학생이 느끼는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입장이 같은 것도 아니구요. 이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모아 내는 것.

학보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이영찬〈상경 · 경영 97〉

성폭력학칙제정 과정 보도해 주었으면

지난 학기 여학생위원회는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성폭력학칙제정의 중요성을 선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준 덕분에 현재 성폭력학칙은 제정을 앞두고 이를 전제로 학교측과 세부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외대학보에서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은주〈사범 · 불어교육 96, 여학생위원회위원장〉

학생들 속에서 숨쉬는 학보

민족자주언론답게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학생들과 살아 숨쉬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이윤재〈사회 · 이태리어 97, 서양어대 학생회장〉

참신성이 돋보이도록

너무 한가지 사안에 치우치지 않는 외대학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대학보만의 참신함을 바랍니다.

정윤정〈서유럽 · 불어 00〉

발행일자 지켜주길

월요일자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신문을 꼭 찾아보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월요일자 발행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선〈동유럽 · 헝가리어 99〉

급변하는 통일흐름, 외대인들도 관심 기울여야

나는 재대한 지 2개월 전도되는 복학생이다.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수업을 들으니 새삼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 그런데 더욱더 새삼스러운 것은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에서 제대하는 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제대하기 전, 군에서는 뭔가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나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는 듯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만남과 합의문으로 온 국민들이 기대에 찬 듯하다. 모두가 통일을 얘기하고 통일은 시대의 흐름인 듯 했다. 군인의 신분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변한 상태가 적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변해가는 사회의 흐름을 적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행사에 참가하고 싶었다. 따라서 지난 8월 15일날 한양대에서 진행된 여러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했다. 또 정부의 통일관련 단체가 진행한 광화문 행사 등에 참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일한국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행사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모든 사회 · 시민 · 지역단체와 개개인 시민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외쳤다. 그후로 신문을 유심히 읽어왔는데 예전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반공 글짓기가 없어지고 통일 글짓기로 바뀌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세뇌 당해오는 반공의식을 민족적 통일의식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의 설문지에는 통일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벽을 허무는 역할도 통일의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통일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가슴을 하나로 묶어내는 민족적 시대의식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 모두의 열망이기에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사항 실천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북측되는 장기수 분들의 모습, 경제협력과 군사적 평화를 유지하는 노력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염원에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조치로 생각된다.

또하나 느낀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대와 역행하는 흐름도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늘 시대의 개척자와 시대의 수구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인가?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의 개척자가 늘 이기는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닐까?

처음은 소수의 생각이지만 역사적으로 정당하기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 등등의 사색을 하면서 지금의 역행적 흐름을 바라보고 싶었다.

어떤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펼쳤다. 다른 면에는 북한 핵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외국 저명인사의 기사도 전면에 실렸다. 한편으로 맞는듯해도 뭔가 미심쩍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한반도에 진정을 불식키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단결해서 통일하자는 합의가 아니었던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정상이 민족앞에 약속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런 식의 논조는 불화살한 북한의 전쟁책동을 이용한 '체제수호'라는 구태의연한 반공논리의 되풀이로 느껴졌다.

과연 민족적 믿음과 신뢰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북한의 핵사찰을 운운하며 통일시대를 앞당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려는 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여하튼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민족적, 시대적 결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통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7천만 민족 앞에 대역죄가 되는 행위이다. 이완용이 역적으로 평가되면서 그 후손은 민족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다. 이렇듯 지금의 시대에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후세로부터 반역자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외대인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을 말했으면 좋겠다.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김남중〈상경 · 경제 92〉

졸업식, 배움터별로 치뤄져야

현재, 다음 학기 학사일정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예전에 계속 제기되었던 한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해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말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서울배움터에서 이문과 왕산 졸업생, 대학원생들까지 모두 같은 날짜에 졸업함으로 인해 항상 졸업식 날이면 사람 한번 찾기도 힘들고 북적이는 시장판 같은 졸업식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다.

본래 졸업식을 하는 의미는 부모님들에게 자신이 배운 그 곳을 소개하고 자신이 했던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고 하나의 허물을 벗어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졸업하기 며칠 전부터 학교는 축제분위기고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공부하였던 책상들과 교실들을 돌아다니며 소개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졸업식은 그저 졸업을 위한 졸업식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졸업식날 사진을 찍지 않고 북적이지 않는 날에 복장을 빌려 사진을 찍고는 아예 졸업식에 오지도 않는다. 누군가 졸업식은 사진을 찍는 데만 의미가 있다고 그런다. 결국 용인배움터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아름다운 배움터를 자랑할 기회를 잃게 되고 서울배움터 졸업생들은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졸업식을 시장판 같은 복잡함에 투얼대며 사라진다. 이걸 제대로 된 졸업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입학할 때는 대학교는 졸업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식은 의미가 없다며 아예 입학식을 하지 않았다. 그 때 어떤 부모님들은 입학식이 있는 줄 알고 나타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졸업식만이라도 의미 있게 치르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용인배움터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석하기 힘들다면서 서울교정에서 졸업식을 하는걸 옹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학식을 서울과 용인에서 오전과 오후에 따로 거행해 별 문제가 없었던 걸 감안한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다수의 부모들이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승용차로 오시는 걸 감안할 때 오히려 주차장소가 넓은 용인배움터가 졸업식 장소로 더 나을 것이다.

그 문제 외에도 식사 후나 전에 각 과별로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가르침을 받았던 과의 교수님들과 후배들과 같이 졸업생들이 함께 사진 찍고 만담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지냈던 교수님들과 졸업생들, 재학생간에 만남이 이전의 졸업식에서는 너무나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당국은 학사일정을 짤 때 좀더 참고하셔서 졸업생들이 기억에 남는 졸업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윤형〈상경 · 경제 94〉

대북강경정책은 자제되어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점차 화해와 단합, 그리고 통일의 기운이 한반도 전체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뒤엎으려는 대북강경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시피 미 공화당은 자신의 2000년 강령이라는 데서 이북으로부터 2~3년 이내에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민을 자키기 위해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느니 한반도에 재침략을 억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북을 걸고 넘어지며 한반도의 화해와 단합, 평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계속 시비를 걸면서 계속적인 무력증강을 통해 이북을 위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화해분위기에 재를 뿌려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전 이북을 방문했던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미국이 떠드는 이북의 미사일 위협들이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내에서도 이북의 미사일 위협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국가미사일 방어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은 군사전략적으로 요새지인 한반도에 방대한 군사무력을 주둔시켜 한반도를 발판으로 세계지배를 차지하려는 망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기어코 수립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북의 미사일 위협 운운하며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와 전세계의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김영준 〈사회 · 행정 96〉

조선일보 극복운동에 동참해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 극복을 외치는 지성인 154명이 지난 8월 7일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 인터뷰 거부를 위한 1차 선언식을 가졌고 '조선일보 허위 · 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시회시민단체에 제안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인사와 단체가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시회단체 13곳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 독립운동가 조문기씨 등 10명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개혁과 남북화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조선일보라는 언론집단이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인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 인터뷰거부를 위한 선언식을 가진 것은 현시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제동을 걸어온 조선일보에 대한 경고이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설 것을 바래서일 것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조선일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매국, 독재와 분열을 고취하는 어용매문지 역할만을 해왔고, 이런 것들로 조선일보는 사회각지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진리와 양심을 갈구하는 시대의 지성으로서 우리 대학생들도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이나 조선일보 불매 운동, 조선일보 독자란에 글 안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제라도 역사와 민족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서 정의의 필봉을 들고 남북공동선언이행에 도움이 되는 통일의 편에 서서 편집해야 할 것이다.

김겸신〈자연 · 화학 97, 언론협의회 의장〉

알림

이번주 명수님은 청탁 관계상 실지 못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외대학보

노벨 평화상은 아마도 우리것?

-김칫국

백지 대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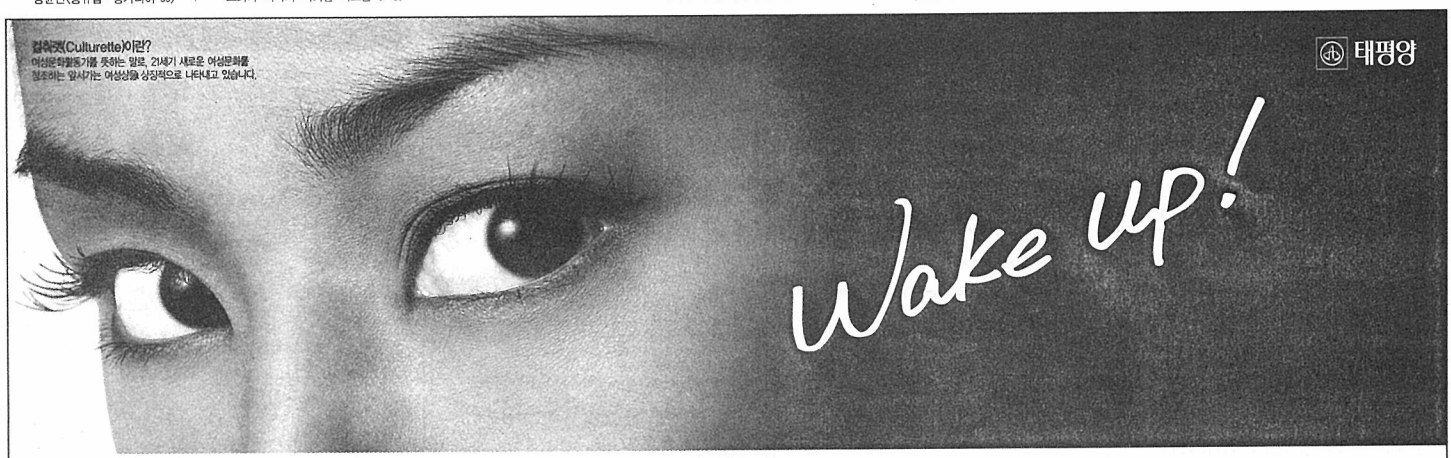
주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김대통령: 남한 꽃게 드셔 보셨어요?
김위원장: 씹힌다 씹혀. 남이 씹힌다.
-5일 전에 남북계 파동 예측하다

김대통령: 매번 혼자 나오시던데 부인은 왜 안데리고 나오시나요?
김위원장: 나도 몰러
- 꽁짜 아저씨

한강에 방류한 독극물을 클린턴과 고어에게 먹이고 콘티콘에도 뿌려보자.
- 대선 준비중인 부시

인민복이랑 선그라스 남는 거 있어요? 배도 좀 나오고 다리도 짧은데...
..이왕이면 흰색이었으면...
-윙드래김



깨어나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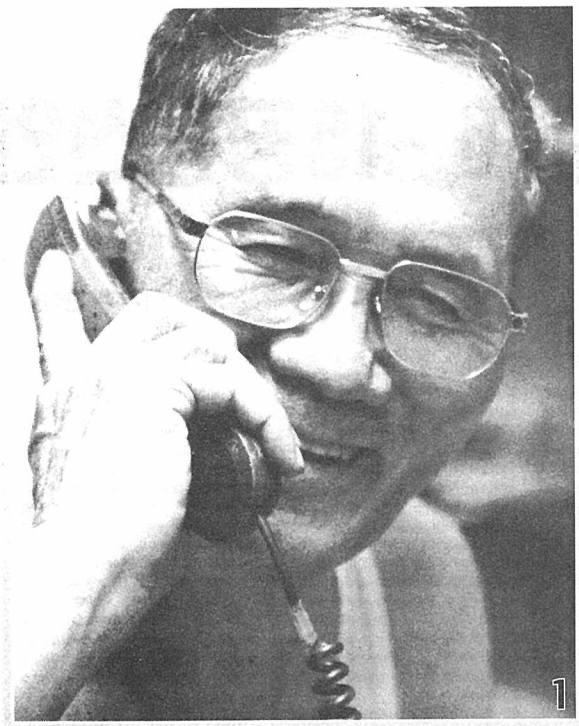
21세기를 리드 해 나갈 진정한 여성은 누구입니까?
21세기 여성을 대표할 큰 목소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제6회 컬처렛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지금 펜을 드십시오. 당신이 21세기 첫 번째 컬처렛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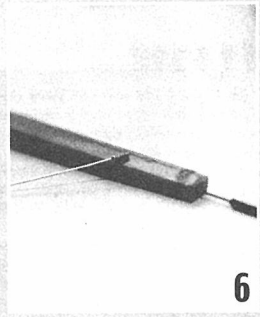
제6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 2000년 9월 1일 ~ 10월 31일
3. 응모주제 : 디지털 시대의 여성의 역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소재도 가능)
4. 응모방법 : 가. 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분량 (워드 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나. 제출서류 : 1. 원본 1부 및 사본 2부 2. 재학증명서 (2000년 8월 현재)
3.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 사진 부착)
다.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기재 라. 공동 연구시 2인에 한함
5. 시 상 :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 10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2000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 출 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2층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8. 기타사항 : 가.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나.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다. 수상자 전원에게 2학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라. 제출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마.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처 :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8/02-709-5631)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현성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전령'으로…

지난 2일 비전향 장기수들이 송환되었다. 북단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 분단의 상처를 딛고 한발 더 통일을 향해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등행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





조선일보

사진글

1) "건강하고 잘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만나지"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북으로 가게된 김은환(70·30년 복역)할아버지가 남한의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으로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이산가족이 생기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비전향장기수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따스한 웃음으로 감싸안을 수 있다. 0.75평의 감옥에서 견디기 힘든 고문을 참으며 보낸 3·40년의 암흑이 이제 빛을 받을 날이 왔기 때문이다.

2) 37년전 북에 처와 백일이 채 되지않은 아들을 두고 온 장병락(37년 복역)씨가 아내에게 줄 한복을 선물받았다. 올라가기 전에 찾아온 민가협어머니들과 37년만에 만나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 빚어낸 남북 갈등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수십년의 생활. 그리고 계속되는 당국의 감시와 '빨갱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에 시련을 느낄때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일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지그시 눈을 감으시며 다시 한번 안아보고 작별을 고한다.

4) "울지말어. 우리를 정성껏 보살펴준 너희들을 잊지 않을거야" 북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나는 안영기(72세·37년 복역)씨가 그동안 보살펴준 자원봉사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한지흔씨의 맨발이 헤어짐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감옥에서 출소하는 장기수는 그 날부터 '어디서 밥을 먹나, 잠을 어디서 자야하나'를 생각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에 처하게 된다. 이런 장기수는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민족애를 느끼고 봉사자들은 통일을 향한 신념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5) 4명의 장기수가 머물고 있던 '한백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다. 북에 가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시 '한백의 집'에 하얗게 바래버린 머리와 구부러진 허리를 가진 장기수가 다시 둥지를 틀 예정이다.

6,7) 감옥에서 생긴 보물. 죽을 지경이 되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옥에서 갑자기 생기는 병고를 이겨내기 위해 침술을 공부하는 장기수들이 있다. 하지만 침은 감옥에서 금지되고 있기에 천장 환풍기를 덮고 있던 철망사를 어렵사리 뜯어내 시멘트 바닥에 갈아 침을 만들었다. 그 침은 칫솔 뒷부분을 파서 37년동안 보관했다고 한다. 감옥에서 받은 편지 역시 물리적으로 인간의 신념을 말살하려는 공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북 송환전 비전향 장기수 김중종(75), 윤희보(84)선생을 만나

나의 고향은 남도 북도 아닌 '통일조국'이다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싸움꾼으로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북으로 간다" 어린 핏덩이 딸을 안아보고 남으로 내려온 젊은이가 어느덧 일흔 노인이 되어 중년의 딸을 만난다는 사연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곁에서 늘 통일의 열망을 안고 살아온 비전향 장기수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중종(75)씨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따라 지난 2일(토)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이다. "0.75평짜리 독방에서 29년, 보호감찰 11년, 모두 40년이라는 가나긴 시간을 '감시대상'으로 살아왔지" 그의 삶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 살아온 삶이었다고 전한다.

그는 자신이 비전향 장기수가 된 것은 자주 독립이 절실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운명이었다고 회고한다. "민주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양감옥소에서 돌아가신 조부, 반일반미를 외치며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경북대학생이었던 나, 민족이 닥친 불행과 우리가족은 함께 했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번도 나에게 전향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던 점이 감사하다. 아마 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부의 삶이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다"며 어렵게 신념을 지키고 살아온 이야기를 전한다.

1948년 5월 단선 반대투쟁으로 수배를 받아 결국 한국전쟁때 월북을 했다. 그곳에서 법률학교를 수학하고 검사로 재직한 그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61년 공작원으로 내려와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지난 30년 수감생활동안 조국통일 운동과 함께 우리말연구를 하여 올해말 옛말로 풀어읽는 우리이름, 우리말, 우리문화 3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정치혁명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말 연구라는 예기치 않은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말 연구를 하고 싶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외세이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위치, 분에 맞게 통일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이다"며 통일에 대한 담부도 잊지 않았다.

"고향을 등지고 친자를 남한에 두고 이북으로 가는 나의 심정을 어떻게표현할 수 있겠나만은, 이북에 가서 열심히 조국통일투쟁을 할 것이다"며 "송환되는 장기수들의 75%가 남쪽 출신이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신념과 마음의 근거지가 진정한 나의 고향인 것 같다. 나의 고향은 예전에도 앞으로도 통일조국이다"고 덧붙인다.

올해 말에 출간될 세권의 책을 교정하러 남으로 꼭 내려오겠다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 29년 복역. 김중종 장기수 선생

▶ 윤희보 선생님의 남한생활을 담은 '해마중가세'

몇년안에 꼭 다시 만나자

떠나기 하루 전, 1일(금)에 찾아간 윤희보 선생의 집은 매우 부산했다. 집안에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방문한 1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고 윤희보 선생은 떠날 채비를 하느라 바빴다. 가지고 갈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고 남아있을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송환에 대한 기쁨 때문인지 매우 밝아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면도를 하는 틈을 타서 북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묻자 "2년간 북한에서 보건사업을 하던 중 통일에 대한 정치 사업을 하기 위해 1952년 11월에 남한에 도착했으나 바로 총에 맞아서 체포되었고 사흘만에 깨어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라며 웃었다. 또, 북에서 전개할 활동에 대해 "북에서도 통일 운동을 합겁니다. 통일 운동은 애국 중의 애국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나서야 합니다"라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가지고 갈 짐을 정리하면서 그는 "6·15 공동선언 이후 학생들을 주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학생들이야말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민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윤희보 선생은 28년간의 옥살이로 얻은 지병으로 저혈압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라며 웃었다.

50년 만에 북녘으로 돌아가는 심정에 대해 묻자 그는 "담담합니다. 남한에서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되지 않아서 아쉽기도 합니다"며 학생들이 남은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송환을 축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은 송환 집결 장소인 북악파크호텔로 가기 위해 양복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도 맸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매는 넥타이라 조금 어색해 하고 매는 방법도 잊어버려 옆에서 도와주어야 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통일은 바로 앞에 있으니 매어도 괜찮지"며 넥타이를 매고는 그의 시와 편지글, 그리고 남한 생활에서의 생각들이 담겨있는 책 '해마중 가세'를 직접 사인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어 그는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당부의 말을 건네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옆 사람들의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몇년 안에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을…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다시만나요

통일할아버지들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박선희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밤' 에서 선생님들과 작별인사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가시는 도중까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저희들은 선생님들께 보여진 '비전향장기수'란 딱딱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뼈깊이 대고 숭고혁명의 사명도 보았습니다. 전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선생님들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숭고혁명까지 참아 내시며 그 험한 길을 택하셨는지.....

하지만 지금도 조금, 아주 조금 알것 같습니다. 바로 선생님들께서 걸어오신 그 외롭고 기나긴 길이 통일의 길이요, 신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떡 네이로 그 길을 이겨가시기 위해 잘지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도. 말씀 누우셔 0.75평 감옥에 보았습니다. 양팔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좁은 공간..... 그 안에서 3,800일을 갇혀 외롭과 혼자 맞서 굳은 신념 하나로 살아오신 선생님들은 '비전향장기수' 이기 이전에 '통일할아버지' 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하지만 준법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시는 발걸음이 기쁘지만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의 몫일 것입니다. 주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곧 저희가 그것을 지지하고 한발, 한발 통일로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외롭고 험난했던 그 길에 이제 꽃밭 가꾸기 할게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일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히 가시고 다시 뵐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2000년 9월 2일
서울에서 선희올림

물꼬트인 통일, 6·15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결의대회

양민학살에서 경제학살로의 고리를 끊자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행사는 매향리 폭격장, 독극물 한강방류 등으로 반미의식이 어느때보다 높은 현시점에서 미군의 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군이 행해온 경제, 문화적 침탈 등의 부당성을 묻고 그 얼기를 모아 6.15선언을 통한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병윤 '전민특위 남측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 여는 말에서 이천재 '전민특위 남북공동위원회' 대표는"미군의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잔인 무도한 행위였다. 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걸쳐 행해지는 미국의 문화, 경제, 사회적 범죄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가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민족이 처한 절실한 과제이다. 이는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나 북미관계의 흐름 등 외부요인에 따라 바뀌거나 할문제가 아닌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당연한 과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연합, 전농 등 전국의 각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결의대회에는전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미군의 범죄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해 온해외 민주인사들도 참여했다.

그 중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인 미셸초스도프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교수는 "노근리 학살은 미국이 조작한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타민족을 유린해온 미국의 기만성과 잔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는 IMF를 이용해 세계를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 지난날의 양민학살이 이제 경제학살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과거일제, 미제에 협력했던 재벌들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과 함께 IMF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완전한 통일일 수 없다."라고 IMF의 허위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농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낙후함은미국의 세계지배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의 방향은 대정부 농산물가격보장에서 진일보한 반미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미8군기지에서 예정되었으나 정부의 불허로 명동성당에서 치러졌다. 민주노총 정상이 사무부총장은 이에 대해 반미 열기가 서울에 확산되는 것을막기위한 정부의 술책이며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 후 참가자들은 통일대축전이 열리는 한양대로 이동하기위해 명동성당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전경들의 봉쇄에 막혀 2시간 가량을 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후 다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의 과잉진압으로 시민, 학생 등 6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그 밖의 머리가 터지는 등의 부상자들은 간단히 치료를 마치고 다시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10여명의 연행된 참가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이 있은 후 풀려났다.

이번 결의대회는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 미군 철거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행사이며 특히 6.15선언 이후 통일이 가시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치러져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 동안 한반도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러고도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 걸음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대회였다.

통일대축전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낮은단계 연방제통일 방안 해설

신뢰속에서 꽃 피는 연방제 통일방안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것 중 가장 값진 수확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통일방안은 통일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남북 정상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고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충분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상호 융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과 관련하여, 이론적 차원의 공통성 유무가 아니라, 그 이전단계의 불신 해소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 그 동안 남측에서 금기시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앙기구와 지역정부를 두고 중앙기구로의 권한 이양을 점차적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은은 남북관계를 특수한 동맹국가로 보고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지향한다. 즉 그 동안 '반국가 국가단체'로 규정했던 북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남측의 연합제안은 국가연합-연방국가-통일국가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데 이는 불안정한 정정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기는 하지만 자칫 분단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단계 국가연합제가 흡수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제시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단일제도로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결과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남측의 힘이 강하면 흡수통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단계라는 미명아래 남북의 관계를 두 개 국가간의 관계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분단고착화를 유력하게 한다.

북측의 연방제안을 살펴보면 1민족, 1국가, 2체제, 2체제의 방식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군사, 외교권을 갖고 지역정부는 자치정부가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분단이후 이질화된 상황에서 제도와 체제의 통일에 앞서 민족 내부의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민족을 통합할 구 있는 정치적 구심을 세우자는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연방정부의 임무는 정치, 국방, 외교 등 대외적으로 민족을 대표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임무를 맡으며 이를 위해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연방회의와 집행을 맡는 연방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각 정부는 자기 지역의 이익과 남과 북의 차이를 줄이는 활동을 한다.

남북공동선언문은 남과 북 7천만 겨레가 보인 환영과 열원을 담은 뜻깊은 합의라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이 역사적 선언 중 서로의 통일방안을 인정한 것은 지난 55년동안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표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회부 habbanr1083@hanmail.net

비전향장기수 환송의 밤에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다

32년 북역, 40년 북역... 그들에게 그 수가 얼마만큼의 의미였을까? 누가 그들을 0.75평짜리 골방에서 세어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오직 조국만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지난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이정표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9월 2일 수십년간 꿈에도 그리던 마음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2천년 통일대축전 본행사에 앞서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 환송대회가 5만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권낙기 선생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의한 장기수 선생님들의 송환은 선배들의 피흘림,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의 결과"라며 "이념에서의 투쟁을 잊지 말고,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 학생,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며 "안녕히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엔 젖어오는 목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권오헌 장기수 송환대책위 위원장은 "민족의 양심을 지키고자 험난한 길을 걸으신 선생님들의 삶과 투쟁을 존경한다"며 이날 민중들의 더욱더 힘찬 통일운동을 촉구했다. 이번에 되는 63명의 장기수들의 형량을 합치면 2000년이 넘는다는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가슴아픈 역사속에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한분한분은 그 세월의 긴 터널을 지나 무대위로 올라오셨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1항 자주의 원칙

제 1항은 통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통일은 남과북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자주의 원칙은 지난 72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함께 천명된 바 있다.

'자주적'인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등 한반도는 계속적인 전쟁위협과 긴장상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해소하고 평화국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대두된다. 현재 '북의 전쟁도발의 위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이유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자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양 당사자간의 논의구조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 등의 문제도 시급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2항 통일방안 합의

연합제

연방중앙정부

국가(사회주의) 북 / 국가(자본주의) 남

1민족/1국가/1체제/2정부
체제통합(분단고착)

연방제

연방중앙정부

지역정부 (사회주의)/북 / 지역정부 (자본주의)/남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족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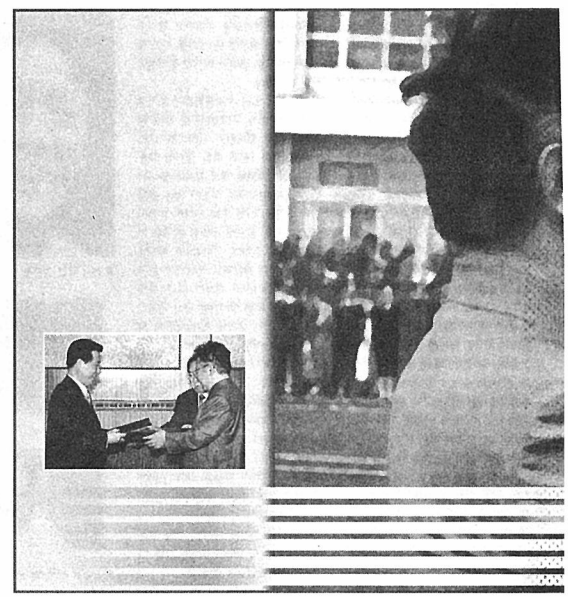
3항 인도적 문제

3항의 의의는 세가지로 볼 수 있겠다. 우선, 민족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 비전향장기수 문제 자체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 인도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둘째, 공동선언이 실천되는 민족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치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민족적 감격과 민족애, 조국통일열망은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민족적 환희를 불러와 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될 것이고 이후 공동선언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정상회담 정신과 공동선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실천단계에 진입하는 출발이다. 즉 3항은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 당국의 실천적의지를 확인하는 첫 관문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지난 8월 15일 이산가족상봉, 9월 2일 비전향장기수가 송환되면서 공동선언 3항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통축참가 외대생 인터뷰

●용인배움터 새내기 인터뷰 윤재우(동유럽·체코어00)

참여하게 된 동기는

친구가 단대 율동패에 있어서 그 친구 율동을 보러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느끼게 되는 자리인 것 같다.

동기들에게 한마디한다면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내가 함께 경험해 보기 전 편견을 가지고 있었듯이 많은 학생들도 그럴 텐데 통일대축전이야 말로 함께 하는 축제라는 걸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이보형(신문방송 98, 과 학생회장)

통축 준비는 어떻게 했나

사회대는 1달 전부터 전민족 특별조사 위원회(전민특위) 실천단을 결성해 준비를 시작했다.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거리 선전전을 펼치는 등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사회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합숙을 가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본질이나 통일의 정당성 등을 직접 느끼고자 한 과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다.

학교에 돌아가서 활동계획은

통일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느낀다. 대자보를 통한 통축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할 예정이다. 새내기들에게도 및 마디 말로써 감요하는 것보다 데려와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승범(인문·철학 90)

통축준비과정과 이 대회의 의의는 무엇인가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매향리에서 농활을 진행하면서 반미, 그에 대해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많은 모순을 느꼈다. 농활을 다녀온 후 농활대 모임을 결성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통일대축전 준비위를 결성해 준비에 들어갔다. 6·15 선언이후 파급력이 커지고 통일 반미에 관한 관심들이 증폭되었다. 통일대축전은 모든 단체들이 모여 이루는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기초와 토대가 되는 대회이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통일과 반미에 대해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권영순(동양·인도어 97)

이번 통축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이후 통일은 대중적인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즐겁게 참가했다.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참여가 작년보다 많아 졌는데 그 준비과정은 어떠했는지

지난 학기 활발했던 투쟁의 성과들이 이번 통축과 방중의 여러활동들에서 잘 나타난 것 같다. 통일을 위해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작지 않다고 느낀다.

통일대축전을 통해 바라 본 6 · 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

이행으로 '활짝' 펴자

역사적인 6 · 15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달아오르는 통일 열기가 한반도를 휩싸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공동선언의 각항에 대한 실명과 더불어 지난 8 · 15 통일대축전의 의의를 함께 담아 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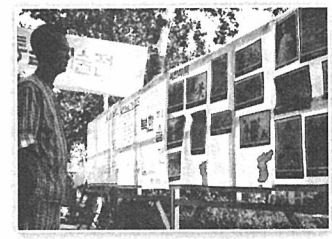
통일대축전 이모저모

"6 · 15 공동선언 기념비가 한양대 정문 앞에"

학생 · 농민 · 노동자 각계 각층 5만이 한양대로 모여들었다. 이제까지 그 많은 수가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6 · 15공동선언은 통일로 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범민련 관계자들과 장기수들이 모여 앞으로도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기를 염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기념식영을 했다. 여기에 안희숙(72)장기수는 "한양대 학생들을 비롯한 이 정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 · 사상 · 이념을 초월해 민족적 의식을 고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일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통일을 얘기하며 웃고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엄숙하게 묵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주 · 민주 · 통일의 열사의 거리"에서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향을 피워 그들의 넋을 달랬다. 이에 명지대 봉해영양은 "이처럼 통일정세가 좋을 때 살아계셨더라면 활발히 운동을 하셨을텐데....요새 다시금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한양대 병원에서도 통일의 열기가"

한양대 곳곳에 통일을 위한 '승리, 희망, 자주'의 거리전이 열렸다. 그 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양대학병원 환자복을 입고 링겔을 꽂고 거리전의 선전물을 구경했다. 그 중 북한미술전을 구경하고 있던 이현길(46)씨는 "통일이후 경제적인 비용과 체재의 혼란스러움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인내를 가지고 통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매향리와 통일의 연관관계

매향리에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의 기운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매향리 주민들이 일일음식점을 운영해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선전전을 하면서 작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을에 떨어진 폭탄들을 전시하고 사진전을 진행해 통일을 하는데 있어 주한미군 철수가 필수조건임을 알렸다.

"미대생들의 솜씨를 뽐낸 반미의 거리"

홍대, 경기대, 중앙대 미대 학생들이 홍대에서 8일동안 합숙하면서 기획단, 창작단으로 나누어 반미거리전을 준비했다. 운동홍대 볼 수 있는 바그니 터뜨리기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아빌 적 기억이 나서 그런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터뜨린 바그니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거, 국가보안법철폐'라는 피시가 흘러내렸다.

1안 경제협력

문화, 스포츠 분야 못지않게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분야다.

얼마전 끝난 장관급 회담에서는 교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를 보장하는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경제 5단체장들이 참여해 '남북경제발전 민간협의회'를 결성, 협의창구를 단일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동질성 회복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자립경제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체제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통일후 경제발전을 상을 그려보는데 경협의 의의가 있다할 수 있겠다.

경협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박인근 남북경협팀장을 만나

"경의선 타고 개성으로 출근하는 날이 올겁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고 있는 상태다. 일단 기업이 북에 투자할 때 발판이 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그간의 진행과정을 밝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인근 팀장은 "최근 언론의 화대보도가 이제 막 시작된 좋은 관계조성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7만여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미 5-6년전부터 북과의 경제적 접촉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빠르게 논의가 진척돼 9월 중순경 방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팀장은 "투자를 희망하는 35명의 중소기업대표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방북, 현지답사와 사업논의를 할 것이다.

주력분야로는 전자, 섬유, 의류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현재 휴전선 부근이나 개성에 공단을 조성할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밝혔다.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북한에 부족한 전기, 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댈 수 있어 공장가동이 용이하다고 한다.

실제적인 공업단지 조성을 집행할 때는 "경제분야는 문화, 스포츠와는 달리 서로의 제반환경, 기술력 등 요구지점을 정확히 타산해야 하므로 성급히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신중히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경협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북한의 경우 컴퓨터 분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관심을 갖는 기업주가 많다.

이는 자구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부족하지만 자체의 생산이 보장되는 남한과 합쳐지면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북의 가장 큰 강점은 우수한 노동력에 있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다 성실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당장의 투자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한 이윤창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직접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주들은 실제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우리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이윤창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느 사업과 같이 '이윤'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간에 경제적 이익도 생기고 통일논의도 차차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경협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일종의 사명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기업주들의 생각을 전하는 박팀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상회담 이후로 부쩍 경협에 관해 관심갖는 기업주들이 늘고 북한주민접촉 승인절차가 한달에서 15일로 축소되는 등 정부 또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계는 활기를 띠고 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방북답사에 설레임을 갖고 있다는 그는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건설중인 경의선을 타고 개성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생길 것"이라며 발빠르게 진행되는 통일경제에 대한 밝가운 예측을 전했다.

2안 이행의 문제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사회 · 문화가 확대되며 군사문제까지 통괄하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실천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6 · 15남북공동선언문에 철저히 입각한 것이다. 적십자회담에 이어 1, 2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됐고 지금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열릴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있다.

회담에서 양측 모두 실천하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 우선 합의를 이루고 향후 어려운 과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속에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회담은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단계를 이뤄냈으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것이 각계의 평가다.

청년학생통일대토론회

대중 속으로 한 발짝, 청년들의 힘찬 함성

이산가족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었으며 △장관급 회담 정례화 △남북연락사무소 가동 △경의선 단절구간 복원(1차 회담) △2차례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사업, 이산가족서신 교환 추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마련 실무회담△9~10월 중 백두산, 한라산 관광사업 △쌍방 군사당국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2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당초 심각한 난항으로 결과를 우려했던 군사분야에서도 신뢰구축과 결제협력화에 합의하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모두가 통일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지난 8월 14일(일) 통일대축전 공간에서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토론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토론의 장을 넘어 청년학생이 실천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남측본부는 한총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청년위원회, 청년연석회의, 전대협 동우회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을 그동안 분단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화해와 통일로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꾸준하게 지켜 온 통일 열기를 8 · 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최고조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학생이 선두에 서서 연대실천투쟁의 기반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더불어 이것을 이행할 청년학생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민화협 청년위원회 김형주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통일의 또다른 문턱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중속으로 깊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남한 운동세력이 통일을 향해 하나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8기 한총련 이희철 의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실천과제로 자주의 원칙, 통일방안의 전민족적 합의', '남북간 교류, 협력과 더불어 6 · 15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민간단체 비롯한 정부, 정당과의 연계 강화'를 제기했다. 따라서 청년학생의 임무로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정치적 과제를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청년학생이 조국통일에 앞장서야 할 것을 밝혔다.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청년연석회의 차상렬씨는 "공동선언에서 명시된 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통일문제 방도는 해결되는 것"이라며 외세간섭을 배재하고 7천만의 힘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씨는 공통점과 차이점 중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이 인정된 만큼 공통점을 우선에 두고 차이점을 메워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주제토론 이후 "청년학생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고 이행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관계 개선, 주한미군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토론회의 막을 내렸다.

통일대축전의 성과와 과제

2천년 통일대축전이 지난 8월 13-15일에 걸쳐 4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양대에서 치뤄졌다. 예년의 8.15통일행사와 달리 공권력과의 마찰없이 행사전반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번 통일대축전은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다. 기간 통일운동은 90년부터 시작된 범민족대회와 90년에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펼쳐져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북미간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확산의 4가지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그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시작할 무렵 이러한 흐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 이는 범민련을 중심으로 4대 정치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통일운동진영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탄압으로 말미암은 통일운동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안으로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가고 동시에 밖으로는 범민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을 통일운동에 망라해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던 통일운동은 공안탄압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게 된다. 정권의 비이성적인 탄압은 96년 연세대에서 극에 달하게 되며 2000여명의 구속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97년 한총련 출범식에 이은 97년 범민족대회는 극에 달한 공안탄압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각계의 통일운동진영은 일정정도 통일운동의 원칙을 재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98년 통일대회는 범민족대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98년 한층 달라진 각계의 통일운동은 99년 범민족통일대축전을 거치며 기간 통일운동의 분열상을 종식시키며 이제 통일운동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게 된다.

그래서 99년까지 통일운동은 4대 정치적 과제와 범민련 중심의 통일운동에 대한 원칙을 합의해 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2000년 2월 범민련은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를 통해 한층 높은 수준의 조국통일의 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하고 통일운동은 본격적인 대중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남의 통일운동의 상황이 변하고 있을즈음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히 통일운동의 정당성이 입증된 수준을 뛰어넘어 수많은 대중단체들이 무리없이 자주의 원칙아래 통일을 자연스레 바라보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통측위에 40여개의 전국중앙조직이 가입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송환, 장관급 회의를 통한 구체적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2000년 이루어진 통일에 대한 공정적 변화는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이제 남북공동선언으로 열려진 통일국면을 앞으로 더욱 더 열어 광범위한 대중을 통일운동의 주위로 묶어내야 하는 과제가 통일운동에 놓여져 있다.

허마리 생활

심층취재- 외대인의 방학과 개강이후 계획

내가 보낸 방학은 헛되지 않았어라…

대학인들에게 방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대학에서 방학은 단지 노는 '휴지기'가 아니라 '재정비기'로 자리매김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보는 다양한 방학을 보낸 외대인을 만나보고 방학이야기와 개강이후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최은미(서유럽 · 서반아어 00 세민전 홍보차장)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일하며 대학에서의 첫 방학을 보냈는데 정말 기억에 남고 보람있게 보내 흐뭇하다"고 전하는 최은미양은 9월부터 3주동안 있을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을 만들어가는 홍보차장으로 또람또람함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별히 혼자 맡아서 한 큰 일은 없어서 참피한데요, 팜플렛 만드는 것, 여러 홈페이지에다 세민전을 알리는 등 홍보하는 일을 했다"고 전한다. "팜플렛은 행사를 처음 접하는 하나의 매체이고 그래서 가장 세민전의 내용을 잘알려야 하잖아요. 정말 막상 팜플렛이 나오고 나면 떨릴 것 같아요"라고 전하는 그는 여러선배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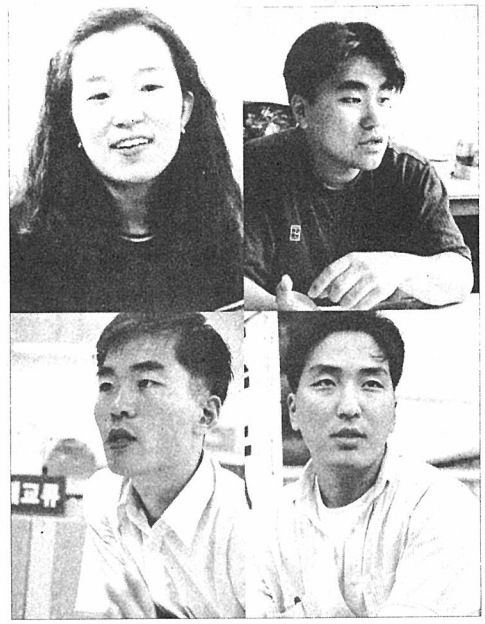
"집이 대전인데 방학에 부모님 곁에 있지못해 아마 말은 안하셨지만 서운하셨을 거에요. 또 나와서 지내며 연락도 잘 하지 못해서 제일 맘에 걸린다"며 이해해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한

임종훈(연구협력처 연구지원담당)

방학에 들어가면 학교는 비교적 조용해진다. 그 조용한 속에서도 1학기 결산, 2학기 계획 등으로 늘 분주하게 보내는 사람이 바로 직원들이다.

임종훈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미국 버클리대학으로 하계영어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인솔을 맡아 남보다 두배 바쁘게 지냈다. "보통 방학때면 연구협력처는 비자 관련업무로 더 바쁘다. 이번방학은 학생들과 연수를 함께 가게 되어 색다르고 보람있게 보냈다"고 전한다. "학생들하고 함께 느끼고 경험해 보려고 수업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대학다닐 때 기분도 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며 5주동안은 버클리대학에서 마련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1주는 버스투어를 했다고 한다. "그때 사귀었던 대만 친구 닉이 오늘 메일로 안부인사를 들어왔다. 편지주고 받는 재미, 친구를 사귀는 재미 또한 활기가 되는 것 같다"며 처음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하루이틀 지내며 소수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대학은 행정집단인 직원들과 교수들과 분리되어있어 독립적으로 상호보완하는 역할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전하는 그는 아낌없이 지다고 말한다. 얼마전 코엑스몰에서 민속공연을 선보였었는데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었던 공연이 무대위로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고있자니 정말 마음이 흐뭇했었다고 한다. "2학기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세민전행사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구요, 전공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아 성적관리에도 충실하고 싶다"는 최양에게서 아무짐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성환(상경 · 무역 94)

"내 앞으로의 삶속에서 방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아쉽고도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전하는 전성환군은 대학생활을 이제 한학기 남겨놓았다. "지금까지 방학은 학교 다니는 동안 못 해보았던 경험들, 부족했던 공부를 채울 수 있는 재충전의 기간이었다"며 학원, 친구들과 여행 등의 활동을 했다

완해주고 그것을 연구하여 발전시키는 미국대학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대만, 일본, 우리나라 학생들은 동양적인 사고, 수업준비자세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는데 스페인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늦고 자유분방한 게 그 나라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화체험의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지 못해 아쉽지만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방학에 긴장하고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들으며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보람있는 여름이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에 준비된 영어강좌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하는 그는 자기계발, 발전이 곧 학교를 위한 내용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방학을 계기로 한발 더 전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건도(인문 · 철학 95)

"제대를 하고 나면 어느 광고문구처럼 '세상을 다 가져라',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지난 해 9월 제대한 박건도군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학생, 소위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다. "예비역이라는 말이 단지 군대를 제대한 의미라면 나쁘지 않겠지만, 과나 학교에선 한물 간 사람, 노땅, 다른세대라는 선입견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며 복학생이라는 단어에 후배들이 선입견을 갖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불만을 토로했다.

외향적인 성격의 그는 1,2학년 과 선전부장을 마치고 IMF로 어려워진 집안사정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으로 군대에 가게됐다고 전한다. 제대하고 나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방학은 취업이 앞에 놓여있다보니 부담이 되고 다른 것은 손에 잡히지 않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공사에 지원할 생각이라 특히 경제공부를 했다"고 전하는 그는 인터뷰 당시에도 경제학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었다.

대개 졸업을 한학기 남겨둔 즈음에는 아무래도 취업이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라고 한다. "대학원갈 친구, 유학갈 친구, 직장에 갈 친구, 모두 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라며 방학기간에 면접도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인상깊었던 방학에 대해 묻자 그는 "아무래도 사람과, 산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었다. 산악부활동을 했을때 보름동안 내설악, 외설악을 돌며 등정을 다녔는데 정말 사람들, 또 산이 좋았다"고 한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놀면 공부 못해 아쉽고, 공부하면 놀지 못해 아쉽고... 아무튼 어떤 것을 하든 아쉬운 건 마찬가지지만 한가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배로서의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졸업하기전에 가장 하고싶은 것은 역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란다. 가장 자유롭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이 바로 대학생활이라는 생각때문이다.

"2학기에는 수업이 많지 않아요. 8학점인데, 아마 취업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 같아요. 취업이 지금의 내게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고민이니까요"

고 10달정도 세일즈맨으로 경험을 쌓으며 자연스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언젠가 시험때 학교에 놀러왔었는데, 노트필기를 메일로 주고 받는 것을 보며 우리때의 복사나 직접 써서 주는 것과는 다른점이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이젠 그렇게 변한 것에 적응하기 바쁘다"며 팸프실력은 수준급이라고 전한다. "사람들은 힘든수업이라고 하는데, 3년만에 강의실에 앉으니 긴장감, 기쁨, 설레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대하고 나니 학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나름대로 각오는 하고 있다. 성격이 활발한 편인데 사실 사람관계, 특히 후배관계에 있어 노력은 하겠지만 낯설고 어색한 느낌, 터놓고 지낼 수 없을 걸로 서로가 한계짓는 것들 때문에 자신은 없다"며 주위 많은 복학생들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 주로 과방보다는 과사무실에서 많이 머무르는 복학생들은 도서관도 많이 이용한다. "적응을 못해서 시간보내는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공부의 필요성, 의무감을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의욕과 설레임에 가득 차 보였다. "공부벌레, 짠돌이, 왕아치 등 하고싶은 게 많아 다 방면에 욕심을 내고 싶다. 차근차근 준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학기가 됐으면 한다. 틈틈히 진지하고도 멋진 사람도 하고싶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생활비꿈이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기

주위에 주인을 잃고 헤메는 물건들을 볼 때 '내 일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없으세요? 만약 내가 잃어버렸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들을 함께 찾아주기로해요. 양 캠퍼스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분실물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활시평

거기에 우체통이 있었다

'방학 잘 보내고 있니? 곧 개강인데 서울엔 언제 올라올거니?… 개강하면 재수강 과목 꼭 같이 들자' 방학내내 집에 내려가 있는 동아리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과 자판을 번갈아 보면서 틀린 글자는 백(back)키로 지워가며 쓴 편지를 죽 훑어보곤 하단의 '편지보내기'를 클릭한다.

'또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마우스가 눌려지면 화면위로 '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이렇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 며칠동안 '보내야지' 하면서 쓴 편지인데 너무 쉽게 끝나버린 발송과정에 약간의 허무함마저 밀려온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오는 길. 집앞에 놓인 덩치 큰 우체통 앞에 까만 우비를 입은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세웠다. 우체통 밑부분을 열고 꺼낸 편지뭉치는 불과 20여통. '부르릉~' 하고 집배원마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우체통이 오늘따라 더 처량맞아 보인다. 아주 당연한 듯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던 낮의 일을 떠올려보며 곰곰 생각에 잠겼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면 으레히 못 만나는 친구들과 편지를 나누곤 했다.

한자한자 꼭꼭 눌러쓴 편지지를 은은한 향수냄새가 나는 봉투에서 꺼내던 설레임의 기억을 한동안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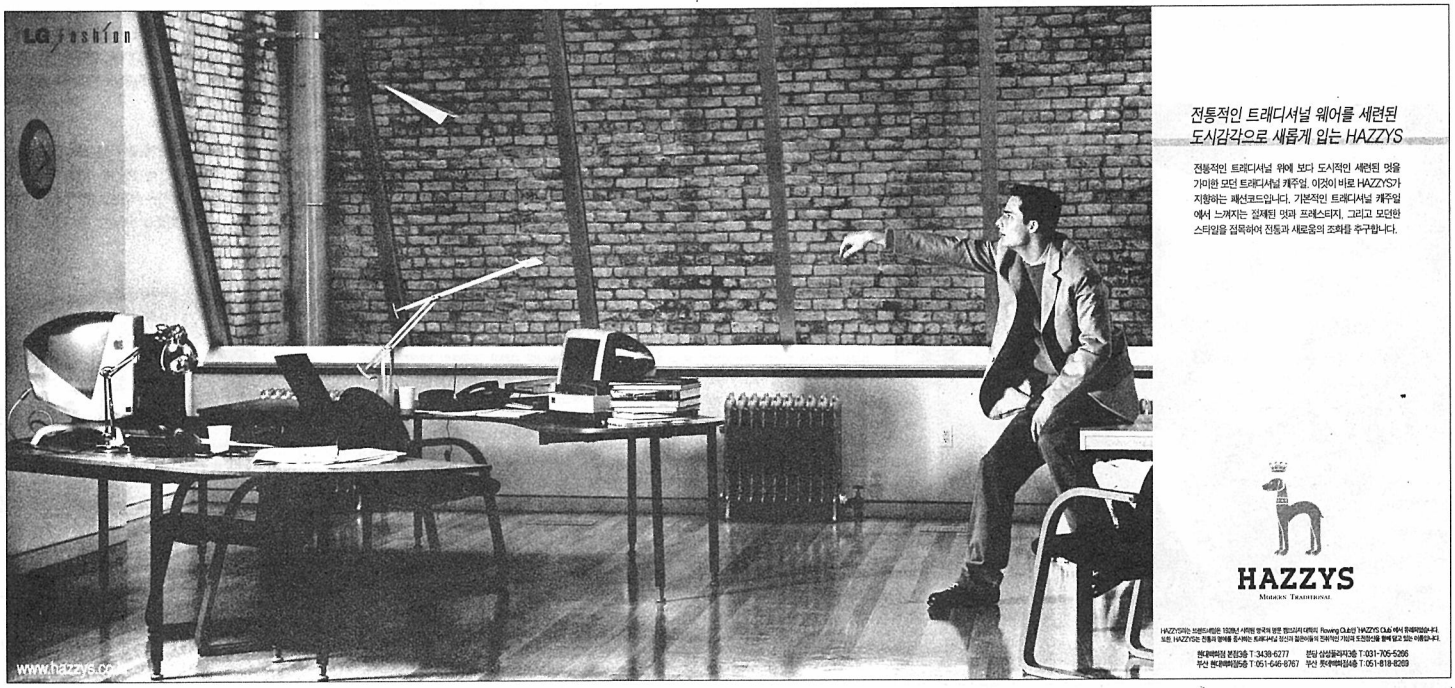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과 1년 반 사이에 전자우편은 우리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적응력을 과시했다.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전자메일의 가장 큰 감점일 것이다. 이에 '속도경쟁'까지 붙어 한 인터넷 업체는 현재 전자우편 점유율 1위인 다른 업체에 공개 도전장을 내민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반면, 컴퓨터로 글을 쓰면 쉽게 쓰고 고민의 깊이가 줄어들게 되는 단점도 나타난다.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줄임말이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글쓰기도 이런 컴퓨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문필가들중에는 굳이 원고지를 고집하는 작가들도 있다.

변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편리와 생활의 윤택을 가져오는 변화라면 열린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간과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곰곰 되씹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자메일을 보내며 분득 한 인터넷 업체의 광고문구가 떠올랐다. 전자우편으로 인해 편지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단지 반가운 소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진짜 인터넷이라던 그 문구가 말이다.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매체비평- 선전성 오락 프로그램의 시정을 요구한다

벗기는 방송, 눈가리고 아웅(?)

올 여름 만큼3사는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연예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출연자들의 노출패션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등 선정성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여름 공포체험이나 번지점프 등 연예인들의 '미션'에 집착하던 방송3사가 올 여름에는 '벗기기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박지원 문화부장관까지 지난 8월 29일 '선정성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발언 이후 방송 3사가 보여준 태도는 선정성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정성 비판의 도마에 오른 '기쁨우리 토요일'의 '오서방 사생결단' 코너는 그나마도 '약전한' 편에 속한다. SBS '뉴스추적'의 경우 고발적 성격을 빌미로 성인인터넷방송 자기들의 선정적인 몸짓과 노출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는 여자연예인들을 불러모아 수영장에서 온갖 레포츠를 즐기게 하고, 심지어 11미터 고공 다이빙대에 세워 점프를 시켰다. 이 와중에 지난 7월 30일 방영분에서는 수영복이 끊어져 여성 출연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공영방송 KBS의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중 서바이벌 미팅 코너에 등장하는 여성출연자들은 주로 수영복이나 짧은 옷을 입은 채 뛰어 다니는 게임을 벌이기 일쑤다. KBS 드라마 'RNA' 주인공들 역시 첫회부터 수영복을 입고 등장하는 등 방송 3사 모두 선정적 화면 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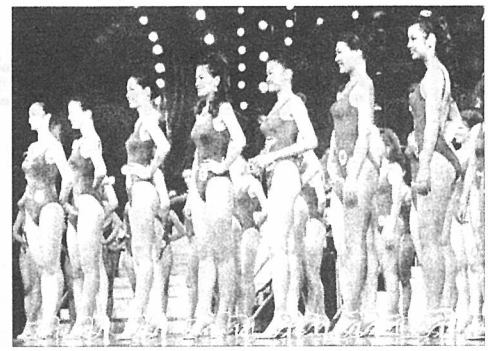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지원 장관의 발언 이후 방송사의 태도다.

가요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가수들의 의상이 갑자기 '길게' 변하거나 여성 출연자들의 '배꼽'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웃지 못할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또다시 '머리염색'이나 '배꼽티'를 금지시키는 등 외모규제에 나섰다. MBC의 경우도 자정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SBS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전심의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한 서신을 제작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프로그램 선정성의 근본적 치유책이라기보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미 방송 3사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예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선정적 화면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밀착 카메라' 등을 통해 언제든지 TV만 틀면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생활을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연예인들의 외모규제가 선정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 3사 제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선정성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방송 3사가 '선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정화를 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출연자들의 배꼽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시청률'에 의존하고 있는 제작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선정적 내용의 연예정보프로그램이나 연예인 신변잡기 코너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작금의 조처들이 '일회성 규제'라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각 방송사는 이러한 외부의 비판에 귀기울이고 방송제작 방향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출연자들의 외모규제'에만 국한될 뿐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각 방송사들은 미인대회, 선정성 짙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듯 '시청률' 위주의 제작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퀴어마을 '기쁨의 세기' 맞다

성적 소수자의 삶과 가치를 생각하는 영화제 2회 '서울 퀴어영화제'가 지난 1일 개막, 10일까지 아트선재센터와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다. 기묘한, 이상한 이란 뜻을 지닌 '퀴어'는 그간 이성애 속에 가려 억압받아왔던 동성애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기쁨, 이 새로운 세기'라는 이번 행사의 기조는 동성애가 박해받아왔던 19, 20세기를 넘어 21세기는 동성애가 기호의 차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영화제는 레즈비언, 게이 극영화를 상영하는 '동성 소녀 극장에 가다' 독립 게이영화를 조망하는 '독립 게이 영화운동과의 만남', 중국계 게이 영화감독 웨인 융의 작품세계를 돌아보는 '아시아인으로서 게이 필름을 찍는다는 것' 등 크게 세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80년 이후 프랑스영화의 특징을 짚어보는 '뚤레랑스 가이', TV게이 드라마를 상영하는 '퀴어마을 청년들' 등의 특별프로그램도 흥미롭다. 또한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의 아외상영장에서는 무료 영화상영회도 개최된다.

문의-02)2237-5629 서울퀴어영화제 사무국

퀴어 영화제상영시간표 - 아트선재센터

회(시간)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1 회 (11:00~)	심연에서	젠더노츠	크리미의 늑대들	맹목적 신념	Sadie Benning 특집	프랑스 게이 단편
2 회 (13:00~)	복종하라 도로시	변태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 화장실의 천사	아무럼 어때	테레브레의 교훈 / 초콜렛	파인딩 노스	기드에스 / 소년, 화장실에 탐닉하다
3 회 (15:00~)	2 초	절망적인 관계	마르티와 그의 세상	당신이나 잘해	한국 단편	만델리와 차를 탄 남자
4 회 (17:00~)	줄리와 나	집시 보이즈	미소년	섹스 몬스터	아웃테이크	하지만 난 치아리더인걸
5 회 (19:00~)	사랑이 다가올 때	짧은 날의 중얼거림	목마른 자들에게 축복을	초콜렛보다 좋아	헤드 온	폐 막 식
6 회 (21:00~)	로리와 빌디 키드	한니발의 아이들	따뜻한 마음	행운의 계약	갯 리얼	
심야 상영 (24:00~)				브레드 타니 이야기 소년은 울지 않는다 소년폭주단편 1	집시 보이즈 로리와 빌디키드 소년폭주단편 1	

연극가 '들썩' 풍성한 서울 연극제

대학로, 돈암동을 위시로한 서울시내 연극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바로 8월 29일 개막,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리는 스물네번째 '2000 서울연극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연극협회, 문화방송이 주최해 해외 5작품 국내 30여 작품이 순수한 경쟁의 장을 마련, 한국공연예술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연극뿐 아니라 무용, 미임 등의 공연예술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출품작 중 한국연극계의 거장 정일성의 '아비', 일본 현대극 '시라치', 유럽의 고전을 새롭게 각색한 '햄릿', 윤석화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바다의 여인'등은 연극계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배우들을 위한 발성훈련 워크샵, 북한연극자료 전시회, 연극관련 강의 등이 마련되었다.

정식 출품작 외 현재 공연중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유참가작 부문에서는 록뮤지컬 '모스키토'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황순원의 소나기 그 후' '조용석의 줄인형 콘서트' 등 다양성이 돋보인다.

문의-(02)3673-2651~3, 서울연극제 축제사무국

문화부 oedae98@hanmail.net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서울배움터 신방과 한국사회연구반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에 속해 있는 한국사회연구반입니다. 저희 한국사회연구반은 외대 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사회과학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정통 맑시즘을 위주로 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한국 사회 연구반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맑스의 분석 방법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무엇인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란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합니다. 맑시즘의 여러 갈래 중에서 저희는 정통 맑시즘을 공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맑시즘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맑시즘은 이미 죽어버린 학문이다' '사회주의는 이미 패배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들이 요즘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통 맑시즘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현대 사회에는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희가 정통 맑시즘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통 맑시즘이 자본주의 사회의 세세한 특징이 아닌 큰 흐름, 전체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통 맑시즘이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속성과 계급의 의미, 해방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연구반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실천위주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천이라고 명명하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서부터, 집회에 나가는 것까지 너무나 다양한 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총 학회의 구성원도 많습니다. 보통 정치경제 학회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고 지루한 학문으로 생각해서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하지만 정치경제는 우리의 생활과 떨어져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학생회에 속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의 분들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에 한번씩 '학술제'라는 행사를 열어서 저희가 공부해온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올해에도 열리는데 11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문화에서 진지함이나 무거움은 없어졌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에 어울리게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세나 흐름 혹은 유행,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한국 사회 연구반이 되겠습니다.

한상헌(사회·신방 99)

더불어 사는 나

반쪽의 언어를 찾아서

까박 - 〈1〉

원래 영악이는 선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선희는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영악이에게 까박을 붙이기가 일쑤였고
영악이는 영악이대로 관리위원장인
아버지를 등대고 못되게 구는 것만 같은
선희를 늘 모주 먹은 돼지 벼르듯 했다
는 것이었다.
- 북한 소설 '북국새가 노래하는 곳' 중에서

까박 → (남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서 핀잔을 주거나 걸고 드는것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① 아랍어과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가볼만한 곳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서울선원

서울성원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 오일파동과 중동건설 붐을 겪으면서 이슬람권 국가들과 외교적 입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과정속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슬람교를 육성하기 위해 1976년 세워졌다. 지금은 부산, 광주, 전주, 안양에도 성원이 있어 외국인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약 10만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 종교는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고, 특히 아랍어는 이슬람경전인 꾸란을 기초로 정리된 언어이기때문에 종교라는 개념이전에 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은 물론 이슬람교의 전파, 그야말로 성원으로서의 예배당역할이 가장 크겠지만, '코리안 드림'으로 우리 나라에 온, 주로 30없종에 종사하는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이슬람 신자들이 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산하단체인 한국이슬람 문화연구소와 토요문화강좌, 한국 무슬림 학생회는 아랍문화를 보다 가까이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토요문화강좌는 매주 토요일 1시 영어, 아랍어, 이슬람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여 아랍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대, 명지대 아랍어과 학생들이 주축인 무슬림학생회는 대외적으로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문화행사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행사는 보통 11~12월에 마련되는 이슬람 음식문화 축제, 9~10월 체육대회, 연초의 이슬람 문화전시회가 있다. 그리고 특히 7~8월에 열리는 WAMY캠프는 사우디, 터키 등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무슬림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여 이슬람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전화- 793-6908, 794-7307
홈페이지- http://www.koreaislam.or.kr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교통편- 버스 81, 23, 78-3, 773번

한국아랍친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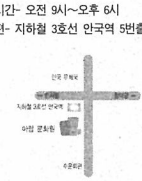
'한국-아랍 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상호이해를 돕고 친선교류를 촉진하고자 1971년 한국 기업인들이 세운 한국아랍친선협회는 그동안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던 현실속에서 민간외교의 참구로서 크게 자리매김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문화교류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미술교류전, 예술전시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경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랍국가들과 관계유지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의 계기로만 생각했지, 문화나 아랍을 인식하는 데 있어 선입견들도 많고, 널리 알리지 못한 점이 큰 문제이다"고 한국아랍친선협회 과장 구미란씨는 친선협회가 정부가 나서서 못하는 일들을 민간차원으로 꾸준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아랍권 국가들의 국가별관광, 역사, 사회, 문화를 안내하는 책자를 갖춰놓고 있으며 충분하진 않지만, 국가소개비디오 테이프, 전통음악 CD, 그리고 전통의상이나 민속공예품들을 구비해놓고 있다.

또한 두달에 한번 아랍국가소식이나 이슬람상식, 문화소개 등을 소개하는 '한국과 아랍'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전시회 같은 문화행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랍권국가들을 다 아우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1998년에는 100평정도쯤 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개최했을 만큼 한번 행사를 하면 비교적 방대한 규모로 열리고, 아랍 13개 국가의 관광자료, 서적, 전통물품, 민속의상, 공예품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된다. 올해에는 겨울즘에 열 계획이라고 한다. 아랍문화를 교류하는 이색적 공간으로 아랍에 대한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전화- 730-5897,8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교통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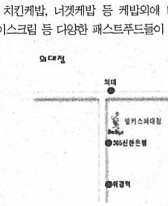
먹거리

아랍음식점 살람

서울 이슬람성원 주변에는 이슬람상권이 형성돼 있다. 터키인이 운영하는 이 식당의 이름은 살람, 평화라는 뜻이다.

케밥, 양고기, 코피타, 닭고기, 바즌잔, 쌔랍마 등 다양한 아랍음식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또한 아곳은 항상 아랍인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여서 아랍친구들도 쉽게 사귈 수 있다.

델리스 케밥- 외대점



고대 유럽의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에서 유래된 음식으로서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를 피타 브레드(PITA BREAD)와 함께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인 케밥을 보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 푸드점이다.

치킨케밥, 너겟케밥 등 케밥외에 버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패스트푸드들이 있다.

읽을거리

아랍인 주하이야기

조희선지음/ 명지대학교출판부/ 10000원

아랍 서민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하의 기담을 소개하고 아랍어 습득을 위한 해설을 덧붙인 책. 주하의 기담은 주하와 당나귀, 이상적인 남편으로서의 주하, 법정에서의 주하, 먹보 주하 등 6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활희 정승의 이야기나 전해내려오는 민담과도 비슷한 것이 많다.

세계문화기행

이회수지음/ 일빛/ 14000원

이슬람권 전문학자 이회수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가 쓴 '세계문화기행'은 180여컷의 컬러사진과 함께 여행의 맛과 그곳에서 느끼는 공부의 깊이를 맛보게 한다.

특히 저자의 전공지역인 터키를 중심으로 그리스, 이집트 등 지중해 연안 문명에 대한 안내의 깊이는 국내의 여타 세계문화 기행과 비교해볼 때 압권이다. 이슬람권에 관한 한 믿음직한 안내자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계속이어짐

학술단신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열어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가 오는 5일(화)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기구의 독립성 △인권기구 구성과 조직: 위원회와 사무국 △과거미청산 중대인권피해자(삼청교육대, 양민학살 등) △성매매 (성폭력 및 매매춘 등) 등의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게 된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언론학교등 강좌열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주최하는 '34기 언론학교'가 오는 19일(화)부터 10월 19일까지 1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다. 또, '공영방송의 시민참여를 위한' 퍼블릭엑세스 활용과 시민참여 강좌가 오는 8일(금)부터 10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

언론학교는 신문과 방송을 통한 언론 바로보기, 한국의 언론사, 시민언론운동, 지역언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뉴미디어운동 및 글로벌 체제에 대한 것 등 언론 전반에 관한 교양강좌이다. 이번 언론학교에서는 △신문바로보기 △언론피해와 그 대책 등의 강연이 손석춘 한겨레신문 기자 등으로부터 있을 예정이다. 언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50명이다.

또한,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강좌는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모두를 다룰 예정이며 내용으로는 '퍼블릭엑세스와 시민운동 활용방안', '퍼블릭엑세스 사례(국내) 및 현단계 준비상황' 등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퍼블릭엑세스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장소는 신촌 민언련 교육관이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 '분단 반세기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민족적 관점에서 평화통일 이룩해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등 민족모순 해결 시급

6·15 공동선언 이후 2번에 걸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이루어져 분단이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급진적인 통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분단 반세기,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부제- 평화와 통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지난 8월 24일(목)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전개되었던 남북한 냉전의 막을 내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 공동 노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은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의와 SOFA개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과거와 같이 미국의 패권,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주한미군의 성격에 규정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1904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의정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며 "두 조약 모두 자국의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며 그 불평등을 이야기했다.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 국(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 자체를 그대로 놔둔 채 해석이나 적용을 잘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첫째 국가보안법은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법으로 법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김정일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참칭', '국가변란', '찬양', '고무' 등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도 형법상 내란죄, 간첩죄 등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세계는 탈냉전 속의 '작은 냉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TMD나 NMD와 같은 군사적 적대와 불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속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오히려 더 냉전전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그 예로 걸프전쟁 직후의 '제 2의 한국전쟁론'과 94년 영변 핵위기, 98-99년 5027-98계획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의 미시적 삶에서부터 거시적인 민족사의 행로에까지 온갖 내정 간섭과 점령군의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통일에 있어서 그는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인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하고 민족사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쟁취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자리가 되었다.

두 정상이 만나 통일에 합의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라는 것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납' 꽃게의 진실

O…인도주의 차원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두고 어떻게든 밤해하려는 보수무리들이 상호주의 원칙에서 남북사를 송환하라는데...

이에 꽃게가 된 크로니클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남북자는 없던데..

'남'북자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직접 가주지..." 그리하여 며칠뒤 우리나라 수산시장에는 '남'꽃게, '남'복어가 출몰했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홍〉

O…정·행 계열 학생들의 과제 복원 요구는 학기가 지나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학기 계열제 철폐 요구로 몸살을 앓은 학교 직원이 "다들 통일이다 해서 합치자, 합치자 난리인데, 다시 나누자고 하니 원"하고 푸념하니..

크로니클자 이를 듣고 답하길 "나뉨과 합침이 누구의 뜻이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지"

〈희〉

O…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잦은 실험실패, 주변국들의 반대 등으로 NMD(국가미사일 방어체제)결정을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는데...

국제 안보를 위시로 한 군산집합체식 정치·경제전략이 고어·부시 두 후보의 선거전략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본 우리 크로니클자 왈

"미국의 결론은... 나쁘거나 혹은 망하거나"

〈꺽지〉

O…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미집회'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운 미국.

'반미감정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고..

이에 우리의 크로니클자 한마디 "이에 이미에 '나 나쁜놈 아녜요'를 써놓고 다니시지 그래요?"

〈룡〉

나 나쁜놈 아녜요

가리사니 '세계를 바로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가리사니

M&A

'적대적 M&A하용결정 상장법인 대책마련 부심', '대우증권 M&A팀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약자로 쓰이는 M&A(Merger & Acquisition)는 경제의 성숙화, 여유자금의 증가, 주가의 약세 등을 배경으로 미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다. M&A는 우호적인 매수와 비우호적인 매수로 나뉜다. 비우호적인 경우,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값으로 매입해 버릴 것을 공표하는 테이크 오버 비드(TOB)란 방법도 이용된다.

우리나라도 97년 4월 1일부터 주식소유한도가 완전폐지, 본격적인 M&A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책

한반도 분단과 통일 이제는 '미국'이 대답해야 할 때

최근 한국전쟁의 원인을 재조명하고 통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이제는 미국이 대답하라'는 남북한 관계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 루이스 앤드 클라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통 좌파잡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자 마틴 하트-랜즈버그는 한반도 분단의 주요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외교목적을 위해 분단을 적극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과 미국 정부의 통일 접근법을 비판하고,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예로 한반도의 통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면서 한국전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구한말부터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다룬 이 책은 우리가 90년대 들어 완전히 머리에서 지우다시피 한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바로 한반도 분단과 독재정권의 암흑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발생되었고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80년 광주항쟁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90년대 초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이를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는 정세 속에서 다시금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저자는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 즉, 북한의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책에서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해방정국의 인민위원회의 권한을 회복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결과에 반대한 미국은 남한의 억압적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북한까지 확장하기 위해 싸웠다"라는 점에서 찾는다.

또한 남한의 흡수통일론을 반대하면서 그는 그 이유로 독일의 경험에 서 보여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들었고 두 번째로 남한의 흡수통일의 정책이 성공하지 않다하더라도 정부의 계속적인 시도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립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남북이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는 다른 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우리가 그 동안 배워왔던 교과서에서 그리고 한국사에서 서술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어본다면 진정한 '사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기자의 눈

누가 이들을 싸우게 하는가?

"전경들아 수고했다. 비록 오늘은 이렇게 만났지만 너희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는 우리와 같이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에는 너희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를 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수고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전국을 누비며 통일활동을 벌인 13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의 활동이 있었다. 위는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통일선봉대 남학생들과 함의방문을 막으려는 전경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진 후 남학생들이 전투경찰에게 했던 말이다.

이들이 부산, 대구, 춘천, 매향리 등 주한미군 기지 함의방문을 할 때면 항상 나타나는 손님들이 있었다.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옷과 보호대, 헬멧까지 쓴 전투경찰이다.

학생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가도 제대로 닦을 수조차 없는 전투경찰들의 모습을 보았다. 학생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기에 그들이 너무 측은했는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해주고 물을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투경찰 중에는 나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힘든 것을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것인지 전투경찰과 학생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투경찰들은 군인이다. 때문에 우리들과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다. 그러한 전투경찰 중에는 내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내 옆에서 공부하던 동기가,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던 후배가 나와 같이 토론을 하며 술을 먹던 선배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만은 지키기 싫다. 위에서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다"라던 한 전투경찰의 외침을 들었다.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과 싸움을 해야만 하는, 아니 싸움을 붙이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한 것 같다. 간접적인 미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역사속에서 검증되듯, 정권은 어느틈엔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집회라는 공간을 통해 '내 형제들과의 싸움' 또한 붙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그때 그 전투경찰이 한 말이 생생하다. 여기는 지키기 싫다는 그의 말이…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만나보기- 98년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방북대표 황선(덕성여대 94)양과 우리학교 새내기의 만남

"우리의 방북, 민중의 가슴으로 평가될 것"

황선 〈덕성여대 94,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지난 98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 대표로 방북했던 황선(덕성여대 94)양이 이번 8·15특사로 정태홍 3기 한총련 의장, 이준구 5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이석주 6기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등과 함께 출소했다. 황선양과 우리학교 임성균(동양·일본어 00)군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방북 당시 북한의 모습과 감옥에서의 생활과 지금의 생각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황선양과의 인터뷰는 정말 어렵게 잡을 수 있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강연, 간담회 등 많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일에도 오후에는 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뿐이었다.

시간에 맞춰 덕성여대 총학생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청바지에 하얀티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황선양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인터뷰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 황선양과 임성균군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하고 집은 자주 들르시나요.

아니요. 자주 들르지는 못해요. 학교는 석방되고 나서 지방을 돌아다니느라고 학교는 거의 못오고 잠깐씩 들르기만 해요. 그리고 집도 출소하고 3일동안 서울에만 있었고 그 후에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어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2년간 감옥에 계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요.

거의 책을 읽었어요. 한 1000여권 정도 읽었을 거에요. 책 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북녘의 실상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알릴까봐 두려웠는지 독방에서 지내고 운동하고 씻는 것도 혼자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조국이 나에게 그 동안 못 읽은 책을 읽게 해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범청학련에서 방북대표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까지 방북대표를 보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북녘 역사문화유적공동답사단'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북에서는 금강산과 묘향산 등 산을 가고, 왕릉 같은 역사 유적, 그리고 학교 같은 말 그대로 문화와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북의 의의에 대해서는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북대표들의 활동을 통해서 통일운동 세력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북대표를 해마다 보내는 의미 같아요. 방북대표의 활동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확산시켜가는 과정이 통일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89년 문익환 목사님이나 임수경씨가 방북했을 때는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보가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방북대표를 계속해서 보냈던 한총련의 역할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민중들의 가슴에서 평가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북녘의 민중들도 식량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시 98년 남한은 IMF로 힘들었을 때잖아요. 북녘의 민중들은 'IMF로 남녘에 실업자와 노숙자도 많고 아이들도 굶고 있다던데 괜찮냐'라며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렵지만 나누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계기'라고 합니다.

남녘에서는 북녘 고위층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고 민중들만 굶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 진짜 그렇다면 민중들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절대다수가 굶고 있고 극소수가 잘먹는 사회가 어떻게 지속돼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녘은 이미 망했어야 옳죠.

방북했을 때 안내해주시던 분이 없이 보고싶으실 것 같아요.

보고싶죠. 판문점이 무너지면 다같이 만날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년안에 통일이 될테니까요.

임성균 〈동양·일본어 00〉

개정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떤가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들어고쳐도 마찬가지에요. 태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손댈수록 개악이 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돌아오신 소감을 말해주세요.

솔직히 2년간의 감옥생활이 사라진 것 같아요. 늘 오던 곳에 또 온 것 같고… 어느 때는 후배가 '언니' 하면서 놀라 뛰어오면 내가 썰렁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늘 있던 그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녀는 2년 동안의 옥살이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다. 이 외에도 2시간의 인터뷰 동안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과 북한의 환경, 광명성을 쏘아올렸을 때의 분위기 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황선양 또한 대화를 하면서 방북기간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 같았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철거바람 속 살얼음판 딛는 사람들

"삶의 투쟁 정당하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성북구청에 의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 월곡 4동은 지난 해 4월 재개발권이 두산건설로 위임되었다.

현재는 두산건설에 의해 주거지에 대한 철거가 완전히 진행되어 재개발이 한창이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한편 허름한 건물 안에서는 철거지역의 상·공인들이 모여 '월곡상공철거대책위(철대위)'를 구성하여 플랭카드들을 건물밖에 걸고 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난 8일(화) 현판식을 진행한 철대위는 '가수용 상가조성과 임대상가 입주보장' 즉, 임시로 건물을 지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재개발 이후 세워지는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철거를 진행하려는 두산건설측의 입장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 '싸움터'에서 짧게는 10년에서부터 길게는 30년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다.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후 그들에게 들아온 것은 자신의 삶터를 버리고 떠나라는 말과 함께 이주비의 명목으로 돌아온 500만원 이하의 돈이었다. 주민들이 대부분 자신의 건물이 없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른 액수가 주어진 것이다.

"보증금에 시설비, 권라금까지 합하면 수천만원이다. 그런데 단지 5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을 주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이옥재(48·여) 철대위위원장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있었다.

지난 6월 29일 새벽에는 '신한환경'소속의 용역깡패 85명과 200여명의 전투경찰이 투입되어 폭력을 사용하며 몰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우고 있다.

"강제철거가 진행되던 날 노인들이 사는 집을 용역들이 무단철거를 했는데 그때 그 집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머리를 다쳐서 1달간 입원을 했고 그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때의 기억에 대해 할머니는 6·25를 방불케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이씨는 설명했다.

그들의 투쟁에 지지, 동참하기 위해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의 학생들이 모여 연대투쟁위원회(연투위)를 구성하였고 그밖의 많은 학교들도 많은 지지방문을 오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학생들의 연대투쟁에 대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언제 어느때 철거를 진행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도와주었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지지가 그들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철대위 측이 확인한 사실로는 오는 4일(월)에서 5일(화) 사이에 1차 철거를 진행하고 추석을 전후하여 완전철거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철대위 측은 "강제철거가 된다면 천막을 치고서라도 농성을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사회단신

서양어대 매향리 농성진행

지난 8일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학생 5명이 매향리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윤재(이태리어 97)군은 이번 농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6월말부터 매향리에서 폭격장 폐쇄를 위해 진행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러한 집회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학중에도 연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향리에서 농활과 함께 선전전과 서명, 모금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매향리 폭격장 앞에서 깜짝 시위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군은 "매향리의 아픔을 간직하고 현재의 상황을 알려내는 선전전과 각과 정기총회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거, 매향리 투쟁을 안건으로 상정해 서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제 4기 최고세계경영자과정 개설안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총체적 경영전략을 제시합니다

1. 지원자격
   국회의원 · 정부 및 언론계의 고위 경영자 / 공 · 사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경제단체 · 연구소 등의 고위 책임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영자
2. 모집인원 50명 내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교육기간 : 2000. 8. 29(화)~12. 19(화)
5. 강의장소 : 교수회관 최고세계경영자과정 전용강의실 · 르네상스워홀호텔
6. 기타 문의사항 : ☎ 961-4109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세 계 경 영 대 학 원

'리쿠르트' 구직등록 온라인 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학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취업을 적극 돕기 위하여 전국대학 최초로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리쿠르트'와 계약(학교에서 월렛오삼만원을 리쿠르트에 지불) 하여 지난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며 8월 23일 현재 42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기 등록자 중 대부분 필수기재사항(희망직종, 희망업종, 어학능력(취득점수), 학력사항(졸업날짜), 광점, 자기소개 등)을 입력하지 않아 '리쿠르트' 에서는 도저히 취업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업추천을 목적으로 학교로부터 단체구직 등록비를 받은 '리쿠르트'는 온라인으로 구직등록한 학생에게는 누구나 1회이상 구인기업체에 취업추천을 해 주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리쿠르트 구직등록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 필수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리쿠르트'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에도 필수기재사항 등을 필히 입력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9. 5

학 생 취 업 정 보 센 터 소 장

안 내 문

긴 여름방학동안 모든 일이 뜻대로 되었으리라 믿으며 2학기(9월 1일)부터 복지시설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학생식당이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아침식사도 가능합니다.
2. 학생식당을 9월 16일(토)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계속적으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3. 매주 토요일(10:00~14:00)에 학생식당매점 및 대학원매점을 운영합니다.
4. 직불카드 역할을 하는 학생증(대학원생 포함)으로 모든 교내 복지시설(식권판매소, 사진관, 이발소 제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2000. 9. 5

총 무 처 후 생 과

서울캠퍼스 특별장학금 수혜신청안내

1. 대상: 가계 곤란자(수혜자 및 실직자 자녀 포함, 은행융자 신청자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서(학생처 비치)를 작성하여 학생처로 제출
3. 신청기간: 2000. 9. 5~ 9. 21(목)
4.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00명, 1인당 100만원/80만원
5. 장학생 발표: 2000. 9. 25(월), 15시이후 발표예정(학생처 게시판)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학생처(구내: 4034-35)로 문의바람

2000. 9. 5

학 생 처 장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2000학년도 2학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후(복학자) 다음과 같이 예비군 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입신고
   가. 대 상 : 복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수전공,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자
   나. 구비서류 : 예비군 방침보류원서(비상계획관실 비치)
   학적변동 신고서(교무처 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원적 복학자는 제외)

※2000년도 전역자의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대원신청 전에 비상계획실로 문의

2. 전출신고
   가. 대 상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자(일반 직장대 편성 대상자)
   나. 구비서류 : 학적변동 신고서
   (교무처 학적과 및 대학원 교학과 발행)

※기타 문의사항 : 학생회관 1층 학생처 앞 비상계획관실로 문의
전화번호 : 961-4145~6. FAX : 963-7334

2000. 9. 5

서 울 캠 퍼 스 직 장 예 비 군 연 대 장

2001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원 접수

1. 제출대상 : 2000년 2학기 현재 3학년(2001-1학기 7, 8학기 등록 대상) 학생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 학생
2. 제출기간 : 200. 9. 18(월)~9. 29(금) 까지
3. 제출장소 :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교무처
4.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원 1부
   "교육실습신청원"은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음.
5. 교육실습기간 : 2001. 4. 2(월)~4. 28(토) 4주간
   교육실습은 매년 4학년 1학기 년 1회 실시함.

※실습학교 선정 :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교육실습 협조 요청" 공문(2000. 9. 방부터 배부)을 사범대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처에서 수령 후 본인의 모교나 거주지 인근 학교의 승낙을 받아, 3학년 2학기(2000. 12월말)까지 "교육실습 승락서"를 사범대학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함.
타교생보다 서울리 9월부터 우선하여 받는 것이 유리함.

2000. 9. 5

사 범 대 학 장

용인캠퍼스 특별장학금 수혜신청 안내 (장경자 장학생 1인 포함)

1. 대상: 가계곤란자(수혜자 및 실직자 자녀 포함, 은행융자 신청자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서(학생처 비치) 작성하여 학생처로 제출
3. 신청기간 및 장소: 2000. 8. 28~9. 19(화), 용인캠퍼스 학생처
4.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104명-1인당 100만원/80만원,
   전액 1인(장경자 장학금)
5. 장학생 발표: 2000. 9. 21(목), 15시 이후 발표예정(학생처 게시판)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 학생처(구내:4033-34)로 문의바람

2000. 9. 5

학 생 처 장

동부지역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연합 통일 기행을 다녀와서

멈출 수 없는 통일을 향한 질주

8월 3일

어제 갑작스런 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동북련(동부지역학생복지위원회연합)에서 주관하는 통일기행을 가보라는 것이었다. 새내기인 내가 가보면 좋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망설여졌다. 마침 같이 가겠다는 친구가 있어 망설임을 잠시 접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도는 나의 망설임은 끊이질 않았다. 고민하는 중에 서울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래도 막상 떠나고 보니 이제까지의 고민은 접어두기로 했다. 이왕 떠나온 것이라면 가서 많이 배워오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1학기동안 집회에 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건 안되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대학교에 와서야 통일이 왜 꼭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언을 들거나 책을 통해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꼈기에, 이번 통일기행을 통해서 많이 보고 직접 느껴보자는 생각이 머리 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남한의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매우 가까웠다.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오두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 망원경으로 북한주민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북한 아주머니가 빨간 옷을 입고 가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남한과 북한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였다. 조금만 헤엄쳐 나가면 북녘 땅이었다. 저 바로 앞이 북한인데.... 조금만 가면.. 순간적으로나마 뛰어내려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앞에 북녘땅을 바라보니 임진강을 건너가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가 어려웠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느낌이었다. 선배들의 얘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느낌이었다. 일정이 바빠 오래 있을 수는 없었지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동안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난 비로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당위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들을 보았다. 모두가 바라는 통일, 어서 통일이 되어 그 그림들이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길 바란다. 그 다음은 임진각까지 자전거 타기였다. 무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2시간이나 타고 가다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더 느껴보자는 생각에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까지 가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쭉쭉 뻗은 통일로를 따라 통일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임진각에서 우리는 통일기원 고사를 지냈다. 나 자신,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민족을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했다. 다음엔 북녘땅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숙소로 돌아와서도 통일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되었다. 자기 전에 착하고 순한 술이라고 써있는 평양소주를 먹었다. 그런데 너무 독했다. 분단 50년이 착함, 순함의 뜻까지 바꿔놓은 것일까?

8월 4일

아침운동으로 하루는 시작되었다. 통일을 외치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갔다. 전날의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더욱더 통일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기행의 들떴 날은 시작되고 있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고석정이었다. 옛날에 임꺽정의 은거지 였던 곳이다. 아직도 이곳 주민들은 임꺽정이 죽지 않고 꺽지라는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고을사또에게 아내를 뺏겨 되찾기 위해 폭포 위에 줄을 걸어놓고 건너다 죽은 재인이 있어서 재인폭포라 불리는 폭포가 있었다. 북한과 맞닿아 있어 최전방으로만 인식되던 철원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분단의 상황만 아니었다면 분명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전설을 뒤로한 채 우리는 또다시 통일을 향해 달려갔다.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제2땅굴을 가게 되었다. 어릴 때 사진으로 보며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곳이다. 이제는 북한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했다.

어둡고 좁은 땅굴을 지나가면서 왜 우리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기 위해 이런 것을 파야 했는지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이것을 반공교육의 현장으로 쓰고있는 현실이 슬펐다. 그 유명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팻말이 철로 끝을 막고 서있는 월정리 역을 가게 되었다. 초등학교 책에 분단에 관한 글이 나오면 자료사진으로 나오는 그 녹슨 기차가 있는 곳이다. 실제로 철마를 보니 사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철마는 달릴 수 있는 날만 기다리며 5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 기다림에 지쳐 심하게 녹슨 철마를 보며 역시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철마가 녹슬기 전에, 이산가족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그 다음에 찾아간 노동당사에서도 무상한 세월을 느낄 수가 있었다. 6.25때 집중 폭격을 당했다는 노동당사는 예전엔 분명 번화한 곳이었을 텐데, 지금은 발사이에 덩그러니 흉물스럽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벽에 잡초만 잔뜩 피어난 채로....그곳에서 '날래를 꿈꾸며'라는 노래로 통일을 염원하며 춤을 췄던 서태지가 생각났다. 그는 삐대만 간신히 남은 노동당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도 역시 50년이라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통일을 바라지 않았을까? 자꾸만 느껴지는 분단의 상처들로 인해 들아오는 길은 무거웠다. 어제가 통일을 막연히 바라게 해주었다면 오늘은 분명하게 통일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점점 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다. 어느새 난 간절히 온몸으로 온맘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었다. 오늘의 기행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나보다. 다들 그 동안 얼마나 반공의식에 사로잡혀있었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땅굴의 충격이 컸다. 아무 것도 모르고 들아갔더라면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가지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에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북한을 한 민족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적으로만 보게 만드는 반공교육에 두려움을 느꼈다.

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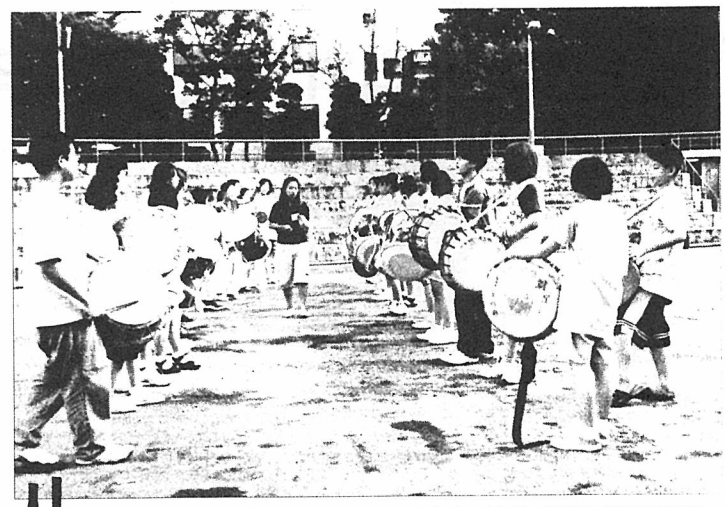
밤새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 얘기하며, '가자 철마야' 등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노래였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노래를 부를 때 낯설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통일을 바라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에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이 뿌듯했다. 이렇게 민족을 걱정하며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이 있기에 곧 통일이 다가오리라 믿는다. 처음 기행에 온 목적이 단순히 놀러온 것이든 공부하러 온 것이든지간에 이제는 모두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할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 북녘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가야한다.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 올땐 북녘땅도 가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통일을 염원

한

전세나
(동양 · 태국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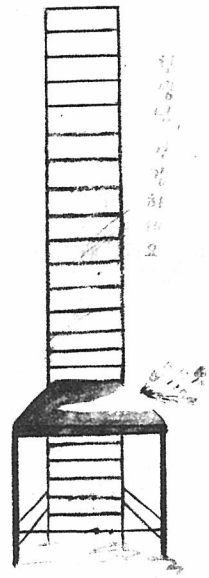


사진부 hyodeng@hanmail.net

덩덩덕 쿵덕, 덩덩덕 쿵덕' '자 동작을 크게하며 힘차게 치세요' 뽕파리를 뜨겁게 달구는 여름햇살 아래 예비 선생님의 얼굴에는 땀이 주루룩. 우리의 것을 하나씩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느라 목소리가 시어가는 어린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참된 교육의 미래를 생각케 한다. 학교는 그리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기 - 예창해 교수 정년퇴임에 부쳐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예창해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

"고전시가를 가르치시는데,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이견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구,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셔. 근데, 수업 시간에는 항상 바른 태도로 수업을 들어야 하지, 결석이나 지각하면 엄청 혼나지…. 여하튼 무서운 분이시지!"

역시 내가 처음에 들었던 말과 같았다. 수업 중에 고전시가에 대해서 신화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여러 가지의 이견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언급해주셨다. 하지만 학생들이 똑바른 태도로 앉아있지 않으면 꾸중하셨고, 올바르지 못한 요즈음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잘못된 사회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끊이지 않는 흐뭇 이야기와 꾸지람에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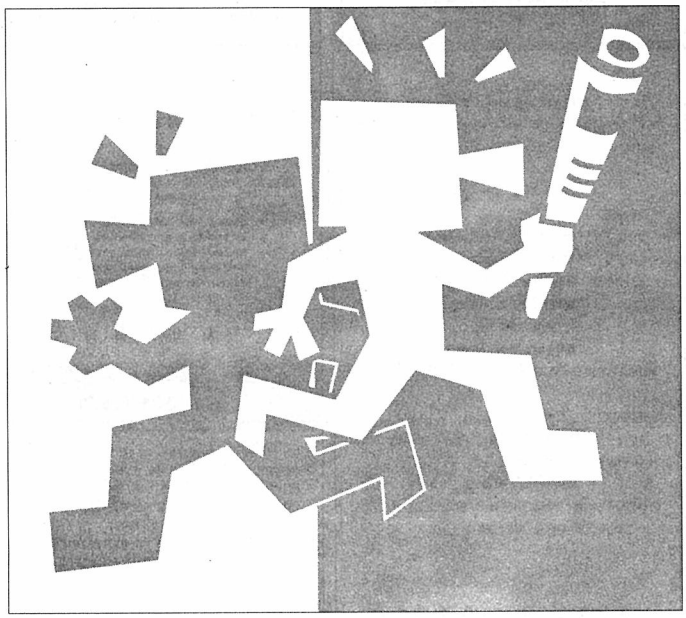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3학년이 되어, 선생님을 과일로 직접 찾아뵙는 일이 있었다. 정말로 많은 긴장을 하면서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이번에 총모꼬지를 가거든요? 선생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로 시작된 나의 말에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 앉아서 과자라도 먹으라는 둥, 뭐 마실 것 좀 주라는 둥…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퇴임하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엠티인데 못 갈 것 같네.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그 날 이사를 하거든"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 때 내가 접한 모습은 강의실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선생님을 보면 예전에 두려워하던 것도 없어졌고 "들어가서 차라도 마실래?"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들어가는 내가 되었고, 전공서적 신청 때에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내가 되었다. 아직까지 한 번 밖에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벌써 선생님의 수업 때와는 다른 모습을 운좋게 경험할 수 있었던 행운이였으리라!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신다나…. 비록 수업을 듣는 중에는 선생님의 날카로운 꾸지람에 긴장을 하여야겠지만, 고집스럽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까지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면서, 보여주시던 선생님의 대학 졸업 사진이 떠오른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낡은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때도 지금의 올바른 모습을 고집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마르시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 선생님께서 건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강의실에서 끝임없이 쏟아지는 선생님의 날카로운 꾸중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명회
(사범 · 한국어교육 98)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합니다.

모집대상 : 00학번 새내기
모집전형 : 15일-자기소개서 작성, 필기시험 16일-면접
모집부분 : 대학부, 사회부, 사진부, 문화부, 학술부, 만화부
문 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기자실
서울)961-4152 용인)3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